Vol.6

제주바투리

제주바투리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바탕인 제주의 인문 사회 자연의 근원을 탐구하는 제주학연구센터의 기관지입니다.



제주바투리 2022년 12월 31일 Vol.6

제주바투리

JRI 제주학연구센터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제주바투리

ISSN 2733-4937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

제주바투리 Vol.6

《제주바투리》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바탕인 제주의 인문 사회 자연의 근원을 탐구하는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입니다.

2022년 12월 반년간지



사라호 태풍이 할퀴고 간 제주

이 사진은 '제3회 제주학 아카이브 옛사진 공개 수집 공모전'(주제: 우리 마을 옛사진)에서 대상을 받은 故 홍성흠 선생 소장 〈1959년 사라호 태풍에 물바다를 이룬 제주 시가지〉이다. 제주에서 거의 수집되지 않은 사라호 태풍에 대한 기록사진으로, 희소성뿐만 아니라 당시 원도심 일대의 경관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그 의의와 가치가 높다. 1959년 9월 17일 추석 명절날 제주도를 강타한 사라호 태풍은 사망 및 실종자 11명, 부상자 127명, 가옥 전파 1,976동, 반파 10,768동 등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겼다. 그러나 수마가 할퀴고 간 제주도는 다시 일어섰다.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는 제주인의 강인한 의지 덕분이다.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의 위기도 결국엔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제주바투리』도 오늘날의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려 한다.

Vol.6 제주바투리
2022년 12월 반년간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





02 **열린 창** 사라호 태풍이 할퀴고 간 제주

06 **발행인의 글** 김순자

08 **제주학연구센터에 바란다** 김범훈

제주학 연구 기관 · 단체 탐방

10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이광준

특집 1 제6회 제주학대회·제주학주간

14 **제주학 아카이브 네트워크 포럼** 조정현

17 **제주 고문서 과거의 유산, 미래의 문화자산으로** 김선필

22 **제주학 역사 탐방: 대정 역사 속을거 닐며** 임승희

24 **세 번째 제주어 포럼 '눌' ,
〈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솜지다삼키다)를 기록하다**
권미소



표지 설명
박성례 作 **합주_꽃밥(Ensemble_Flower food)**(34×46㎝, 밥상 위에 막걸리병, 수저, 스티로폼, 2021)
작가는 "한 스푼의 밥(스티로폼)을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눌 때 밥상 위에 꽃이 피듯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한다. 제주학도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어 밥상 위에 꽃이 피듯 모두의 마음에 즐거움을 가져다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 제주바투리 6호(반년간)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발행일 2022년 12월 31일
발행인 김순자
편집위원 조정현, 김미진, 임승희, 김선필, 권미소, 김우리, 고은솔
디자인 · 인쇄 도서출판 각(064-725-4410)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8, 3층(이도1동)
전화 064-726-5623 팩스 064-900-1840 누리집 www.jst.re.kr





특집 2 故 김윤수 심방의 숨결을 들여다보다

30 **큰심방 故서재(瑞齋) 김윤수 선생님**
(사)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34 **선생님, 큰심방 김윤수 선생님** 김희숙

37 **제주 도황수 큰심방, 김윤수의 생애와 무업** 강소전

제주학 산책

40 **해녀노래 속에 담긴 제주인의 삶** 이성훈

42 **제주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과정 연구** 오은주

44 **제주도 방사용 탑에 담긴 제주사람들의 소망** 고수미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학 동향

46 **2022년 하반기 제주학연구센터 사업 현황**

57 **2023년 주요 사업 일정**

61 **제주학 동향(2022년 하반기)**

발행인의 글

모두 함께, 새로운 희망으로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다사다난했던 임인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보낸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다가오는 한 해에는 무언가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희망도 아울러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맞이는 설레나 봅니다.

우리 제주학연구센터는 지난 2월에 제주시 건입동에 소재한 새로운 곳으로 사무실을 옮기며 2022년을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새로운 공간에서 새 마음으로 제주학의 진흥과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건, 제주학이라는 바다가 그만큼 넓고 깊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욱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많았던 해였습니다. 제주 사회의 가장 큰 아쉬움은 제주 굿 문화의 전승과 제주4·3영혼 등 제주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셨던 제주학의 큰 별, 도황수 서재(瑞齋) 김윤수 선생을 떠나보낸 일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 9월 서재 선생께서 별세하시니 제주사회는 '제주전통문화예술인장'으로 선생의 가는 길에 함께하였습니다. 선생과의 이별에 안타까움이 컸지만 '저 자신 아픈 육신을 벗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길'에 유족과 제자들, 그리고 도민사회는 눈물로 떠나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생은 갔지만 선생이 남긴 지대한 업적들은 길이길이 빛을 발하겠지요. 우리 센터도 선생이 남긴 귀한 자산들을 전승하고 보존하는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서재 선생님을 생각하며, 영결식에서 김경훈 시인이 도황수 김윤수 선생을 추모하며 낭독했던 고별시 '큰 별 하나가'를 가만가만 읊조려 봅니다.

한평생 아픈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던
큰 별 하나가 하늘에 아로새겨졌다.
저 자신 아픈 육신을 벗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미여지벵지 지나 서천꽃밭 지나
하늘에 닿았다.
전설따라 흐르는 미랫내 그 어딘가쯤
그 자신 전설이 되어 빛나고 있다
전생 팔자 궂은 신의 형형 심방되어
온갖 수모 굴욕 다 이겨내고
세상사 어두운 악연 훌훌 풀어내다
그 자신 단골들 인연 접고
저 청한 하늘에 밝은 별이 되었다.
고개를 들어 우러러보는 큰 별이 되었다.

우리 센터는 서재 선생이 제주사회에 끼친 영향력을 도민들과 나누기 위하여 아쉬운 대로 『제주바투리』 지면에 '특집호'로 꾸며 봤습니다. 특집호를 내는 데 도움을 주신 (사)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영원한 춤꾼 김희숙 님, 굿 연구가인 강소전 님께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제주의 무속과 신화를 보존하고 전 세계에 알리신 제주학의 어른이셨던 김윤수 심방의 영면을 기원하고 유족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주학은 일부 학자들만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제주학은 제주도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제주 도민들의 삶이 만들어낸 문화적 총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센터는 제주학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학문 분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사업들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호 제작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계묘년에는 팍팍한 우리 삶에 한층 윤기가 더해지길 기원합니다. 검은 토끼의 영민함과 민첩함으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샘솟길 기원합니다. 우리 센터도 제주학을 통해 많은 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을 짓겠습니다. 모두 함께,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품고 새해를 맞으소서!

고맙습니다. 제주바투리

곶자왈 등 화산섬의 고유한 자연유산 인문사회적 가치 발굴 등 외연 확대를



김범훈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이사장)

2023년 제주학연구센터는 설립 12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센터의 역할을 되돌아볼 때 제주학의 진흥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왔음을 평가한다. 특히 '열린 제주학', '따뜻한 제주학', '실천하는 제주학'의 구현을 내건 센터의 비전은 21세기 지방학의 시대를 맞아 적절한 지향점으로 읽힌다. 제주학의 내실을 다지고 그 지평을 넓히면서 연구진과 함께 도민 사회와 소통하겠다는 다짐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로써 제주도의 인문·사회·자연 과학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 연구, 연구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된 센터의 초심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고 더 큰 날갯짓을 펼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

Ⅰ. 모름지기 제주학연구센터의 3대 역할을 꼽으라면 제주학의 고유성, 전문성 그리고 대중성을 지속가능하게 높여나가는 일일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센터 기관지로서 2020년 『제주바투리』 창간 이후 5호째 실린 '제주학연구센터에 바란다'의 내용을 간략히 돌아보려 한다. 각계에서 바라는 바를 다시 한번 공감하고 싶어서다.

허남춘 교수(제주대 국어국문학과·제1호)는 제주의 정체성을 위해 '제주학' 학문의 독립이 필요하다면서 △재단법인으로 독립 △센터 연구원의 본분 보장 △도내 연구 컨트롤타워 역할 △제주어박물관 설립 등을 제시하였다.

손명철 교수(제주대 지리교육과·제2호)는 지역학 연구대상으로서 제주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반개방 체계 △독립적인 지역연구 단위 △독특한 자연 및 문화경관 △독립적인 지방노동시장 △지구적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 공동운명체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안창남 위원장(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제3호)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된 탐라문화권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선점할 수 있기를 주문하였다.

부용식 관장(해녀박물관·제4호)은 정책방향으로 △연구기관·단체·개인과의 협업 △유관기관 정보공유 △제주학의 선도적 위상확립을 제언하였다.

배영환 교수(제주대 인문과학연구소장·제5호)는 제주학연구센터의 방향으로 △독립적인 연구기관인 제주학진흥원 설립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 충원과 처우 개선 △제주방언관 건립 △신진 연구자 지원 △연구비 확대 △교류 확대를 제시하였다.

Ⅱ. 필자가 굳이 『제주바투리』의 지난 호 내용을 인용하는 이유는 제안된 각각의 콘텐츠들이 센터의 미래 가치 제고를 위해 시급하고 필요한 사안들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제주학진흥원' 설립은 센터의 숙원 사업이기에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제언하고 싶은 바가 있다. 세계 최초의 유네스코 자연 과학 분야 3관왕으로서의 위상, 제주의 허파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곶자왈 등 화산섬 제주의 고유한 자연유산의 인문학적 가치 발굴과 제고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제주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화산섬이다. 세계지질공원 인증도 국내 처음이다. 특히 제주는 세계적으로 화산학의 교과서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치는 자연유산이 바탕이다. 제주학에 자연 과학이 빠질 수 없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제주의 인재육성 산실인 국립 제주대에는 이러한 가치를 고양할 순수한 지질학과조차 없다.

선사시대 이후 화산섬 곳곳에는 제주인의 삶이 묻어나고 있다. 제주의 자연은 인문화된 자연이라는 얘기다. 제주학은 화산섬의 독특한 자연적, 지리적 공간에서 삶을 영위해 온 제주인의 유무형 문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복합 학문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한다. 제주를 연구하는 본산지로서 제주인이 주체가 된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조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자연 과학 분야로 제주학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곶자왈만 하더라도 최근에는 지하수를 함양하는 지대로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그만큼 곶자왈의 지속가능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단편적인 지질연구와 공유화 등 보전 노력만이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센터의 자연 과학 분야 연구 인력은 한 명도 없다고 한다. 그럴수록 곶자왈과 함께해온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문학적 가치 발굴과 채록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된다.

Ⅲ. 제주학연구센터의 여건은 예산 지원에서 인력 확충 등에 이르기까지 열악한 실정이다. 이럴수록 센터는 제주학 선도 기관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제주학진흥원 설립 등 주어진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이에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제주바투리

안녕하세요, 노지문화 서귀포를 가꾸는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입니다

이광준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센터장)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는 지속가능발전 도시(Sustainable Development City)를 위한 창의문화 플랫폼을 만드는 도시문화경영 조직입니다. 2019년 7월에 개소하여 문화도시 예비도시 사업을 서귀포시와 서귀포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준비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도시 규모가 큰 다른 예비도시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만드는 성과를 만들었고 현재 문화도시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 중입니다.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계획(2020~2024)〉에 담긴 문화도시 서귀포의 핵심가치는 '시민 주도성', '문화 다양성', '생태적 지속가능성'입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확대하고 자연환경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가치입니다. 이 3대 가치를 토대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에 기반한 새로운 도시 전환을 실험할 수 있는 문화도시 비전, 조성목표, 20개 과제를 담았습니다.

서귀포시 문화도시의 비전 슬로건은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입니다. 여기서 노지와 노지문화는 서귀포의 문화원형을 뜻합니다. 노지는 '이슬이 내리는 땅'이나 바깥이나 야생이란 뜻을 넘어 105개 마을에 각각 다르게 있는 중산간, 오름, 곶, 바당 등 삶의 배경이자 삶의 일부가 된 서귀포의 자연을 의미합니다. 일상에서 쓰던 노지소주, 노지감귤, 노지고사리에서 차용한 문화도시 조어인 노지문화는 자연환경에 순응하고 역동적으로 도전하며 빚어낸 삶의 문화이자 서귀포 공동체의 문화원형을 뜻합니다. 또한 노지문화는 105개 마을의 다채로운 문화적 특성이 어우러진 복합체로 그 자체가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105개 마을의 노지문화'는 서귀포의 문화 다양성을 상징하고 해안마을, 중산간마을, 산간마을 등 주변의 자연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진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서귀포다움'의 상징이자 서귀포의 '미래 문화자산'의 원천인 노지문화는 자연과 공존하며 이어온 서귀포인들의 생활양식의 총체입니다. 서귀포시 문화도시는 유무형 문화유산과 생활 문화원형을 미래세대가 이해하고 공감하여 보존하고 재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대로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자는 서귀포 시민의 공감과 합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정 문화도시 서귀포의 조성 목표는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생태·생태문화도시'입니다. 문화도시 서귀포의 비전인 105개 마을이 만드는 노지문화는 노지와 문화를 결합한 그 의미 그대로 생태적 가치(노지)와 문화적가치(문화)를 융합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자산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여 제주도 서귀포 시민들의 삶의 질 또한 높아지게 합니다.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는 문화도시 서귀포의 비전과 목표를 함께하는 창의적인 시민들이 모이는 문화허브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예술 창작 지원과 생활 문화 지원 역할을 한다면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는 도시 차원에서 제주도 서귀포 지역문화(노지문화)를 보존, 재생, 활용을 위해 예술가와 문화기획자와 로컬크리에이터와 함께 마을의 문화시민과 미래세대가 미래문화자산을 만드는 과정을 기획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협력합니다. 청년 유출과 인적 자원 부족이 심각한 서귀포의 단점을 새로운 것을 포용하는 수용성과 환대의 문화로 바꿀 수 있도록 지역문화, 창의문화, 기후변화의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문화도시의 상호신뢰 네트워크는 감귤밭과 밭담과 올레와 도시의 골목과 정원에서 자연과 함께 자유로운 삶을 사는 모두가 꿈꾸는 도시를 상상합니다. 제주도 서귀포는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도시이자 105개 마을마다 공동체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가능성의 도시입니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는 문화도시 서귀포의 4대 세부 목표를 추진합니다.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청사

첫째, 서귀포의 노지문화를 미래의 문화자산으로 키워갑니다. 마을 주민들이 지역을 재생하고 일상을 풍성하게 하는 문화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마을문화공간을 문화협약을 통해서 105개 마을에 형성합니다. 이를 거점으로 마을 주민과 예술가와 청년과 문화기획자가 마을의 유형·무형의 노지문화를 조사, 발굴하고 이를 콘텐츠화하여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원으로 키웁니다. 이 과정에서 삼촌들은 살아온 삶이 문화임을 깨닫고 창의적인 미래세대들이 예술로 과학으로 만들어갑니다. 문화도시 서귀포 마을문화공간이 마을의 노지문화 보물상자(자연/문화)를 연결하는 노지문화여행 정보센터 역할을 하고 문화상점이 됩니다.

둘째, 창의문화 학습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창의적인 조직(플랫폼)을 창출합니다. 디지털 기반 분산형 문제해결 과정 중심의 창의문화 학습생태계(창의문화 캠퍼스)를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서귀포 시민이면 누구나 접근가능한 자연에 대한 존중과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가질 수 있는 인문학,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할 도시에 대한 상상력을 만드는 과학과 예술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초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와 국내의 인문사회학자/과학자/디지털전문가/로컬크리에이터/소셜벤처가와 제주도의 제주학/인문학/생태학/지질학/생활사/로컬크리에이터가 오래된 지혜인 노지문화를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재창조할 도시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라져가는 노지문화를 가속화하는 도시의 여러 문제와 마을의 문제를 창의문화캠퍼스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로 설정하고 국내외 혁신가와 창의문화캠퍼스의 창의문화농부가 함께 다양한 솔루션을 만들어 갑니다. 이를 통해서 성장하고 유입된 미래 세대와 마을의 문화시민들이 새로운 문화공간과 문화상점을 만들고 문화기업에 도전합니다.

셋째, 105개 마을의 노지문화에 기반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경제의 기반을 만듭니다. 2030 지속가능목표(SDGs)의 11번 목표인 지속가능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져야만 궁극적으로 노지문화의 보존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귀포의 자연경관과 농경·목축·해녀문화에 바탕을 둔 문화자산, 태평양전쟁과 4.3에 기반한 역사문화자원 등 서귀포의 노지문화를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재창조하여 서귀포다운 라이프스타일 '노지 스타일'과 '노지 브랜드'와 이를 유통한 '노지마켓'을 창출합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도시 거점공간으로서 노지문화 기록보관소(아카이브) 공간이면서 디지털 기반 전시 공간이자 창의문화캠퍼스 거점역할을 할 노지문화 보물고팡(창고) 조성을 추진중입니다.

넷째, 제주도 서귀포가 진정한 문화도시로 글로벌 도시 브랜드를 갖도록 합니다.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는 해외의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의 활동들

문화도시와 직접 교류를 통해서 문화유산을 브랜딩했던 노하우를 배우고, 지역 문화에 기반한 마을축제의 진정성을 익혀서 만들어간 노지문화 기반 공동체 축제, 유럽, 미주, 아랍, 아프리카, 환태평양의 예술가와 과학자와 함께 하는 글로벌 기후위기 예술 프로젝트를 만들어갑니다. 또한 국내 디지털 기반 스타트업과 해외의 문화기반 스타트업과 노지문화를 디지털화하고 독특한 디자인을 혁신적인 제조 기법과 결합하여 지역의 생산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고 기존의 지원, 육성, 양성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자발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의 사업 추진 전략은 일시적인 예산 지원 방식이 아니라 파트너쉽(partnership) 구축을 통해서 플랫폼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험에서 출발하고, 작은 연구를 통해 파트너쉽의 시작점을 만들고, 상호협약을 통해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합니다. 문화적 상호협약은 문화적 방식과 공진화의 룰을 담은 상호약속 체계입니다. 자율적인 시민 모임과는 문화적 약속, 문화도시 거점 마을과는 문화협약을 맺고, ESG의 가치를 실현하는 단체, 기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기업 등과 상호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생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융합하여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 지역 문화경제를 함께 만들는 창의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갑니다. 5년 동안(2020년~2024년) 만들어가는 이러한 파트너쉽에 기반해서 서귀포시가 글로벌 기후변화와 관광의 변화에 대응하여 현재의 농어업도시와 관광도시에서 나아가 20년~30년 후 도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마중물을 만드는 것이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의 역할입니다.

2023년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는 3년 동안의 실험과 작은 성취를 바탕으로 향후 2년 동안 파트너쉽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시민모임과 마을과 지역단체와 창의그룹을 발전시켜, 성공한 실험과 기획을 도시 전체로 확산하려고 합니다. 자율적인 노지문화 놀이탐구 모임인 '노지문화탐험대'와 병행하여 105개 마을별 '노지문화 발굴단'을 구성하고 활동하게 합니다. 노지문화탐험대의 탐험 결과 노지문화 발굴단의 발굴 결과 중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문화원형을 '서귀포시 미래문화자산 추진단'이 미래문화자산으로 지정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젊은 연구자와 디지털 기업과 함께 '노지문화랩'을 구성하여 디지털 아키이빙, 스토리텔링, 콘텐츠화합니다. 노지문화랩에서는 마을별 권역별 주제별로 미래문화자산을 맵핑하고 VR 경험환경을 통해서 미래세대가 노지문화를 선체험하는 환경을 창출합니다. 창의문화캠퍼스 '노지문화 이야기꾼' 스토리텔러 코스를 통해 마을 이장님과 삼촌들을 노지문화 마을산책의 이야기꾼으로 양성하고 노지문화가 디지털과 구전을 통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완성합니다. 이를 통해 서귀포시 전체가 문화 주도의 도시발전 패러다임의 기초를 만들어 미래세대가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고 글로벌 창의주체와 연결하여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문화 환경과 창의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제주바투리

특집 1
제6회 제주학대회 · 제주학주간

제주학으로 노닐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제6회 제주학대회 · 제주학주간을 개최했다. 〈제주학으로 노닐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제주학 학술대회, 제주학 네트워크 포럼, 제주어 포럼 '눌', 제주학 역사 탐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제주학 아카이브 네트워크 포럼

–제주학 아카이브의 현재와 미래–

조정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제주학 아카이브 네트워크 포럼 개최 현장

탐라 제주의 자료를 차곡차곡 '눌어 가는' 아카이브 협력체계 만들기

제주에는 한반도에서도 사라진 한국 고유의 문화가 오롯이 전승되어 왔고, 여전히 많은 제주인들이 전통 문화를 전승하고 있어 그 고유성과 전통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서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일은 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듯하다.

이에 제주학연구센터는 2014년부터 제주학 아카이브를 구축해오고 있으며, 도내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아카이브를 만들어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성과들이 제대로 알려지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이번 포럼을 통해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번 네트워크 포럼은 많은 분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이다. 기조발제로 함한희 무형문화연구원장께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고, 제주 곳곳의 공공 기관과 민간 단체 관계자가 아카이브를 공통분모로 적극 참여했다. 또한 이번 포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주대학교 허남춘 교수가 종합토론 좌장을 맡았다.

1부 기조발제자로 나선 함한희 교수는 유럽지역 유로피아나 등의 사례를 들어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한 기제로 아카이브가 활용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과 단체 간의 끊임없는 소통과 논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2부에서는 제주학 관련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 기관과 민간 단체 11곳에서 각각의 아카이브 구축 현황과 한계성, 미래전망에 대한 모색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백지현 학예연구사는 실물 위주의 유물 수집과 유물 아카이브, 특히 제주 생활 도구에 대한 조사 연구와 아카이브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제주도 전체 아카이브를 담아낼 수 있는 기관이나 플랫폼이 마련이 되면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제주도립미술관 강수지 학예연구사는 2020년 독립미술관 아카이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소장 미술작품 921점에 대한 아카이빙 작업을 수행해오고 있지만, 지속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완료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향후 도립미술관 소장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아카이브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시킬 예정이라고 하였다.

제주시문화원 백종진 사무국장은 1994년 창립되고 나서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과 번역, 옛 사진 자료 수집 및 자료집 발간, 아키비스트 육성과 유튜브 채널 활성화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으로 저작권과 초상권 등으로 인해 애써 제작한 영상이나 콘텐츠가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향후 제주학연구센터 등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가면 좋겠고, 통합 플랫폼 등이 그러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제주문화예술재단 고희송 팀장은 예술적 가치를 토대로 한 아카이브를 고민해왔고 예술인 아카이브 구축 사업 등을 수행했으며, 2020년부터 신과세제, 영등굿, 마불림제, 시만곡대제 등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본격적인 아카이브 작업을 하기에는 서버 구축 등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애써 만든 성과를 체계적으로 서비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으며, 향후 통합 아카이브가 구성되면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줄 수 있는 전문적 학예연구사, 기록관리사 등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하였다.

제주4·3평화재단 조찬양 기록관리자는 4·3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2017년에 한 차례 아카이브를 구축하였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잦은 기관장과 아카이브 담당자의 교체로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향후 제주도 표준 메타데이터나 자료 공유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각 기관 단체의 아카이브 역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고희관 팀장은 2016년부터 개소하여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옛사진 자료, 생애사 자료 등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였지만 민간 위탁의 한계가 있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사업 수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였다. 향후 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도 자료를 올릴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마련된다면 좀 더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하였다.

서귀포문화도시센터 이광준 센터장은 현재 센터에서 미래문화자산추진단을 구성하였고 휴먼라이브러리 사



기조발제에 나선 함한희 교수



포럼 참가자들

업을 통해 다양한 노지문화 자료를 사진과 동영상, 텍스트 등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도시 거점 마을을 선정하고, 스토리맵핑 작업과 구글 등록을 통해 마을 자료들이 아카이빙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서귀포문화원, 안성리 마을기록관, 서홍동 마을역사관 등과 협력해서 아키비스트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지속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조성원 담당자는 도내 282개 마을에 대한 일반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하고, 주제별로 특화된 마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는 하고 있지만, 아카이브 담당 직원이 없고 구축된 자료에 대한 감수 시스템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민간 단체 부문에서 우도마을신문 〈달그리안〉 김영진 대표는 2017년 우도마을신문이 창간되었고 1호부터 14호까지 발간하면서 여러 자료들이 산재해있음을 파악하고 고문서, 옛사진, 어르신들의 생애사 등을 자연스럽게 수집하고 정리하였으며 전시회, 체험행사 등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사진예술공간 큰바다영 고경대 대표는 옛사진의 가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진 콘텐츠와 아카이브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공공아카이브가 전문성, 예산, 통합 플랫폼, 초상권 등 저작권 관련 지원 등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단체 등을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정읍 상모리 강성모 회장은 『상모리를 기록하다』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 등을 몰라 정말 어렵게 사업을 수행했는데, 향후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과정과 같은 다양한 지원사업과 통합 플랫폼 등이 활성화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끝으로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은 제주학 아카이브는 제주 사람의 것이기에 제주 사람의 삶의 역사를 담아내야 하고 제주 사람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2020년부터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제주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 수집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고, 2021년에는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도 개설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포럼에 참석한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듯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이 절실한데, 향후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학 아카이브를 통합 포털 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각 기관 단체들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축해나가면서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위 토론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네트워크 포럼은 제주학 아카이브의 현재를 극복하고, 각 기관·단체별로 더욱 발전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의 디딤돌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앞으로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제주학 아카이브에 대한 집단지성의 힘이 발현되어 제주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이루고, '제주다움'을 기록하여 널리 공유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제주바투리

2022 제6회 제주학대회 학술대회
제주 고문서: 과거의 유산, 미래의 문화자산으로

김선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종합토론

제6회 제주학대회 학술대회는 〈제주 고문서, 과거의 유산, 미래 문화자산으로〉를 주제로 개최됐다. 제주 지역은 다른 곳에 비해 고문서와 관련된 조사, 수집,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물론 여러 연구자들이 제주의 고문서를 조사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상태이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제주 지역 고문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수집, 연구, 지속가능한 활용을 가능하게 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했다. 이를 위해 도내외 고문서 연구의 권위자들을 한자리에 초청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의 기조 강연은 이해준 공주대학교 명예교수가 〈고문서 연구 현황과 지역학〉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해준 교수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사 연구는 국가사, 전체사, 중앙사의 시각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로 인해 지역의 독자적인 개성이 무시되기 쉬웠고, 지역의 성격을 잘못 규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었다.



기조 강연: 이해준(공주대 명예교수)



주제 발표: 권진호(한국학진흥원 국학기반본부장)



주제 발표: 임승희(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고문서 조사와 연구에서 가장 기본은 '언제, 누가, 어떤 목적에서, 누구에게 준' 문서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나 지역 문화가 지닌 성격과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고문서는 각 지역, 시기, 분야별로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주고받은 생활사의 여실한 기록일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사회상과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1차 사료인 것이다. 이점에서 지역 고문서 자료의 조사와 정리는 그 지역을 주체의 입장에서 분석할 수 있는 지역사 연구방법론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지역 문화는 중앙 중심의 지배 문화나 고급 문화가 강요하는 보편성과 달리 독자적인 개설(특질)을 지니고 있으며, 이 특수한 개성이 올바로 이해될 때 지역 문화는 본래의 가치가 재음미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문화에 대한 중앙의 평가를 번복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남아 전하는 전승 자료를 지역민의 안목으로 충실히 정리·연구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 문화의 특성은 유형과 성격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특성과 흐름이 있다. 이들 다양한 문화 유적들은 유적들마다 성격, 시대별 요점과 핵심이 있고, 바로 이들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를 고문서로 상징되는 지역만의 기록 자료로 뒷받침하여 밝혀야 한다. 고문서 자료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성격을 보여주는 생생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는 권진호 한국국학진흥원 국학기반본부장이 〈민간소장 고문서 조사·수집·연구 성과와 과제: 한국국학진흥원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문중 등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를 조사, 수집, 연구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기관이다. 제주에 산재한 고문서는 관찬사료와 같이 중심부에서 생산된 사료가 아니라,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사료라는 점에서 한국국학진흥원의 사례는 제주 지역 고문서 연구 및 활용 방안 모색에 주요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민간 소장 고문서를 자연적 멸실과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장자의 소유권을 보장하고 관리권만 위임받는 '기탁(위탁)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훈증 소독을 거치고 분류표에 의거하여 분류된 뒤, 수장고 및 장판각에 입고하여 보존, 관리되고 있다. 이때 한국국학진흥원은 기탁자에 대한 예우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기탁된 고서, 고문서의 탈초 및 번역 사업을 강화하고, 기탁된 자료의 문화재 지정 신청에 역량을 집중하며, 비지정 문화재를 보존·관리하여 민간 기록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는 노력들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국학진흥원은 소장 자료들을 탈초·번역하고 DB·콘텐츠화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고문서 자료 원전과 전통 생활사 자료 등을 창작의 원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고 서비스함으로써, 전통 문화원형 관련 컨텐츠 개발 및 문화 산업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고문서를 해독할 수 있는 특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한문교육원을 설립 운영하고, 청년들에게 관련 분야 실무 경험과 자립기반 환경을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만 56세 이상 할머니들을 전국적으로 선발하고 유아원과 유치원에 파견하여 유아들에게 한국적 정서를 담고 있는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을 펼치고 있다. 나아가 국학분야 인공지능 자동 번역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문서에 대한 대중적 접근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음은 정수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문서연구실장이 〈제주지역 자료의 조사·수집·연구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제주 지역 고문서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연구를 앞서 진행해왔던 국책연구기관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조사한 제주 고문서로는 제주 애월 수산리·중엄리·하가리 고문서, 제주 어도 진주강씨·조천 김해김씨·구좌 동래정씨 고문서, 제주 진주강씨·곡산강씨·김해김씨·경주김씨·제주고씨·동래정씨 고문서 등이 있다. 정수환 고문서연구실장에 의하면, 19세기 제주 대정현 사계리 호적중초를 통해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추적할 수 있었고, 어도 진주강씨 소장 고문서를 통해 토지소유와 매매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수집·조사된 제주 고문서들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문서사료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 고문서 연구의 우선 과제는 고문서의 훼손을 막기 위해 항구적인 보관 방식을 보급하고, 보관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전근대 연구에 머물지 말고 마을에 대한 집중연구로 입체적 자료 수집과 활용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임승희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이 〈제주학연구센터의 고문서 조사·수집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고문서는 역사 연구의 1차 토대 사료이다. 따라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석해야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관찬사서류, 읍지류, 개인 문집 등에 나타난 제주 관련 기사들은 중앙 중심적인 시각이 일정하게 반영되





주제 발표:정제규(문화재청 전문위원)(위)
좌장: 홍기표(전 성균관대 겸임교수)(아래)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우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주관한 '국학기초조사사업(고문서의 조사수집 정리 및 기초연구)'에 참여하여 제주 애월과 대정, 중문 지역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구축사업'에 참여하여 제주 대포리·안성리 호적중초 및 문중 고문서를 중심으로 DB를 구축하였다. 2009년에는 문화재청이 주관한 '일반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에 참여하여 애월읍 강태복가 고문서류 210점과 제주향교 소장 고문서류 133점, 제주 삼성사 소장 고문서류 60점, 제주 삼양민속박물관 소장 고문서류 98점을 파악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제주 고문서의 체계적인 발굴과 정리, 해제, 연구 작업을 통해 제주 지역의 역사 문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제주 관련 관찬 사료인 승정원일기 제주기사를 번역하고 있다. 또한 제주 역사 문화 자료 발굴 및 번역 편찬 사업으로 제주 고문서 조사 및 해제 발간,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사료 번역, 일본 소재 신문 자료(프란게 문고) 번역 사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제주 역사 문화 자원 조사 및 연구 사업으로 제주 유배 문화 자원 조사, 제주 호적중초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를 수행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도민들과 나누기 위한 제주 역사 문화 대중화 사업으로 제주 고전 강독회, 탐라사 및 고문서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해왔다. 그 결실로서 약 1,359책 내외(호적중초 546책, 통적 200책, 민적부류 64책, 기타류 549건)의 고문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주학 총서 『제주계록』(2012), 『제주통사』, 『탐라사의 재해석』(2013), 『탐라순력도 탐색』(2014), 『제주학개론』(2017), 『제주도개고, 매우 단편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사실 제주 지역 고문서는 1990년대를 전후하여 제주도문제연구소(현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제주도사연구회, 고창석·김동전 등 개인에 의해 수집, 연구, 영인본 출간이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며 제주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우당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대학교 박물관 등의 제주학 관련 공공기관들이 제주 고문서에 대한 자료집 또는 영인본을 연이어 출간해오고 있다.

특히 제주대학교는 중앙 기관과 연계하여 고문서 조사



학술대회 참가자들

세』(2019)를 발간하고, 제주역사 자료총서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동아일보, 일본어신문, 조선일보, 매일신보, 부산일보, 『승정원일기』 제주기사(효종대, 현종대, 숙종대, 경종·영조대), 『프란게문고 제주기사 자료집』, 『유배문화 자원 보고서』, 『유배문화 자원 조사 사업 사료집』, 『제주 고문서』(제주 상창리 양씨가 고문서, 제주 도두리 마을 고문서, 제주 상예리 마을 고문서, 제주 조천 김해김씨 김희정 일가)를 출간했다.

마지막으로 정제규 문화재청 전문위원이 〈제주 고문서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문화재청은 국가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관할하는 주무부처이다. 정제규 전문위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 고문서 자료는 특정 지역과 그 지역에서 대대로 세거한 성씨집단에서 생산·전래된 동리 고문서 및 문중 고문서 자료들이 많다. 이들 자료는 육지와 다른 제주의 특별한 동리조직의 역사 속에서 생산과 보존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주 고문서를 통해 섬이라는 공간적 차이(제주가 지닌 지리적인 여건과 역사적 상황 등) 속에서 나타나는 시간적·공간적 특성을 살필 수 있다. 특히 공적인 문서들에는 '섬으로서의 제주도'이기에 나타나는 특정 유형의 자료들이 많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제주 고문서 자료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 제주 고문서 자료에 대한 자원 조사 및 활용 계획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은 『비지정 기록유산의 자원 조사 및 활용 기본 계획』을 구축하고 2022년 1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 기본 계획은 '원형 보존을 통한 문화정체성 확립'(2002)에서 '국민의 문화향유권, 지속 가능한 발전, 보호기반 확대, 국제적 위상 강화'(2012)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기본 계획 추진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와 비슷한 개념과 전망을 지닌 제주 고문서 자료의 보존 관리 및 활용 계획과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호적중초, 분재기, 명문 등과 같은 자료에 편중되었던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전문 기관 및 관련 연구자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상 내륙에 있는 전문 기관의 위탁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제주에 전문 기관을 두어 고문서 자료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제주바투리

제주학 역사 탐방: 대정 역사 속을 거닐며

임승희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정난주 마리아 묘역

올해 6회째를 맞는 제주학대회·제주학 주간을 맞아,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 도민들과 제주학으로 노닐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10월 6일 제주 도민과 함께 〈대정 역사 속을 거닐다〉를 주제로 제주학 역사 탐방을 진행하면서 조선 시대 제주목, 정의현과 더불어 제주의 삼읍으로 불렸던 대정현(지금의 대정읍) 지역의 다양한 역사 문화 유적을 찾아 나섰다.

대정읍은 조선시대 대정현청의 소재지이자, 일제강점기 대정면사무소가 자리했던 제주도의 오랜 중심지 중에 한 지역이다. 과거 제주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된 이 곳에 남겨진 역사 문화 유적들을 찾고, 이야기를 전해 듣기 위해 고영철 선생님(제주흥사단 문화유산답사회장)을 모시고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조선 시대 김정희의 유배지로 알려진 안성리 추사적거지와 대정현성, 보성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옮겨진 정온 유허비, 사계리 단산 자락에 위치한 대정향교까지 모두 대정읍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 나섰다.

제주의 근현대 시기를 관통하며 남겨진 유적들도 만날 수 있었다. 의병장 고사훈(고승천)과 함께 의병 활동에 참여했다가 순국한 의병 김만석의 묘(가묘)는 안성리에 남아 있고, 그의 유해는 1988년에 모충사로 이장되었다. 1901년 신축민란(이재수 난)을 주도했던 이재수, 오대현, 강우백 세 장두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을에서 세운 것으로 알려진 삼의사비도 살펴보았다. 신축민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의 관리 하에 만들어진 조선식산은행 건물은 여전히 하모리 시내에 자리하고 있었다. 비록 뼈아픈 역사의 현장이지만, 일제강점기 건물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기에 당시 유행했던 건축 양식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 포로수용소였던 건물 '제20수용소'가 있던 장소도 찾아가 보았다. 지금 그곳은 건물의 외벽만 남아있는데, 당시 전쟁의 실상을 알리는 근현대 역사 교육의 현장이라 할 수 있는 곳이었다.

답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정난주 마리아묘를 찾았다. 정난주는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의 조카로서 천주교에 입교하여 1791년 황사영과 혼인하였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자, 일명 황사영 백서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고 황사영은 순교하게 된다. 이때 그의 어머니는 거제도로, 아내였던 정난주 마리아는 제주도 대정현에 유배되고, 아들은 영광군 추자도에 유배되었다. 정난주 무덤은 1970년대 초에 발견되어 지금의 동일리 지경에 천주교 대정성지 성역화 사업을 통해 정난주 마리아 묘역이 만들어져 안장되었다.

이번 탐방은 제주도민들과 함께 대정 지역의 가치 있는 역사 흔적을 찾아 현장을 거닐며, 다양한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도내에 산재한 소중한 문화유산과 기록되지 않은 역사까지도 함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꾸준하게 만들어 제주 도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제주바투리


삼의사비

세 번째 제주어 포럼 '눌', 〈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솜지다삼키다〉를 기록하다

권미소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이추룩 아꼽곡 제라진 말이 어느 돌코망에 싯당 나와신고.[1]"

제주어가 어느 돌코망에 꼭꼭 숨어 있던 것은 아니었다. 모두가 여기 '이추룩 아꼽곡 제라진 말'이 있다고,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하루라도 빨리 지켜야 한다고 외쳤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조금 별나게 생긴 뭔가가 있다뿐이었다.

그런데 그 희한한 것이 김혜자의 입을 통해 "느네 아방추룩…."으로, 이병헌이 "어멍 다시 태어나믄…." 하며 부르짖고, 정웅인이 "사름은 혼 가지만 졸바로 허믄 된다." 하고 단언하자 '이추룩 아꼽곡 제라진 말이 어느 돌코망에 싯당 나와신고'가 되어 버렸다.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2022) 홍보물
–출처: 〈우리들의 블루스〉 공식 누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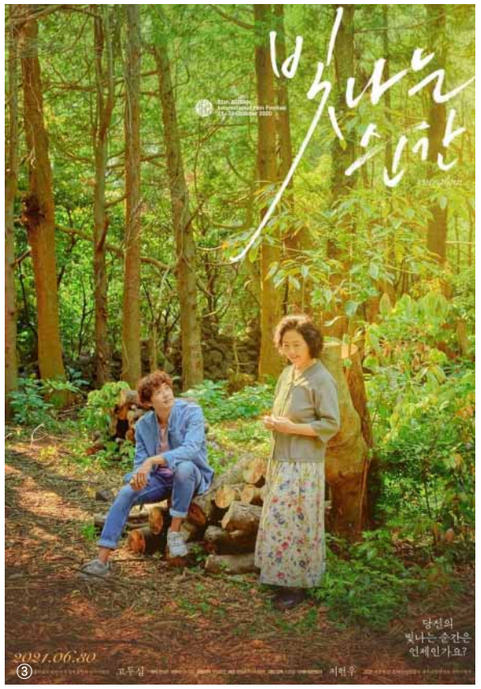
사실 13년 전 드라마 〈탐나는도다〉부터 아니, 더 그 전부터 제주어가 사용된 영화·드라마가 있었지만 이제와서야 영화·드라마 속 제주어가 제대로 평가받는 듯했다. 2022년,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파친코〉가 제주어를, 전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게 했다. 제주어가 오랫동안 입고 있던 '투박하고 촌스러운 말'의 옷을 벗고, '통통 튀는 듯 귀여운 말'로 탈바꿈하는 데에 큰 공을 세웠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2022년 제주어의 연관 검색어로 따라붙었던 영화, 드라마를 제주어 포럼의 세 번째 눌의 주제로 톺아보기로 했다. 제주어 노래에 젊은 감각을 입힌 가수를 초대했고, 제주어로 가득한 영화 〈빛나는 순간〉을 함께 감상했다. 이어 제주와 제주 문화를 기반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감독, 배우, 작가 등과 토론의 장도 열었다. 10월 7일 벌였던 현장의 모습을 정리하며 '제주 바투리'

1) 영화 〈봉오동전투〉 재수(홍상표)의 대사와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춘희 삼촌(고두심)의 대사를 적절히 섞은 것이다.







① AppleTV+ 드라마 〈파친코〉(2022)
–출처: 〈파친코〉 공식 누리집
② 가수 루아의 공연 장면
③ 영화 〈빛나는 순간〉(2021) 포스터

한 면에 풀어 보고자 한다.

"골앙 몰라 봐봐사 알주, 골앙 몰라 봐사주.", 가수 루아의 발견

그야말로 루아의 발견이었다. 가수 루아는 포럼에서 〈느영나영〉과 〈봐사주〉 노랫말에 제주 사람의 '경, 영'과 '골앙 몰라 봐사주'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자신의 노래 〈봐사주〉를 소개하며 제주 사람들에게는 매운맛 버전의 제주어, 제주어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먼 나라의 외국어처럼 들릴 수 있는 노래라 했다. MZ세대가 부르는 '망사리', '소살', '테왁' 등이 경쾌한 리듬에 맞춰 흘러나오자 포럼에 참석한 50대부터 70대 관객들은 '잘 헴저!'를 외쳤고, 함께 부르자는 "골앙 몰라 봐봐사 알주" 후렴구에서는 모두가 한 목소리가 되었다. 루아가 1988년 혜은이의 〈감수광〉 이후 전국으로 통하는 제주어 노래의 대표 주자 바통을 잡은 가수라 감히 평가하고 싶다.

을큰ᄒᆞ엿던[2] 삼춘의 삶에 빛이 내리던, 영화 〈빛나는 순간〉

제주가 낳은, 모두의 배우 고두심이 주연을 맡은 영화 〈빛나는 순간〉에는 제주 여성, 제주 바람, 제주 바다가 오롯이 담겨 있었다. '육지 거'가 바라보는 제주 사람과 제주는 영화 속에서 한없이 반짝거렸다. 나의 옆집 삼춘을 제주어로 그린 영화가, 을큰ᄒᆞ엿던 삼춘의 삶을 보상해 주는 듯했다. 4·3의 고통을 이야기했

2) '을큰ᄒᆞ다'는 '억울하다', '섭섭하다', '서운하다'의 뜻을 갖는 제주어다.

지만 〈지슬〉만큼 어렵지 않았고, 해녀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켰지만 〈계춘할망〉처럼 어설프지 않았다. '살암시민 살아진다.'고 말하던 삼촌도 마음 한 켠에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사랑할 수도, 사랑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 영화 때문에 포럼에 참석했던 이들은 꽁꽁 쌓아 놓았던 눈물을 훔쳐냈다.





제주어 포럼 '눌' 좌담회(위), 영화·드라마 속 제주어 대사 전시(제주어 포럼 '눌'행사장 주변)

제주어를 솜진 영화·드라마, 그리고 제주어 이야기

열심히 살아온 내 어머니의 노고를 알아주는 관심, 지금이 제주어 보전의 골든타임

좌담회가 시작됐다.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이 중심을 잡고 영화 〈물숨〉의 고희영 감독, KBS 드라마 〈가옥신〉의 김선희 작가, 〈파친코〉의 제주어 감수를 맡았던 변종수 배우, 도 문화정책과 변영근 과장, 도의회 양영식 의원과 함께 제주어를 삼킨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앞으로 제주어의 보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고희영 감독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보여지는 제주어에 대한 관심이 그간 열심히 살아오신 어머니의 노고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에 와서 제주의 풍경만을 보던 사람들은 이제는 그 너머의 세계를 보고자 하고, 그 너머에 있는 언어가 눈에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희영 감독은 제주어를 100% 담아낸 영화 작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제주도 말로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표준어로 대역을 해야 할까 하는 문제라고 했다. 결국 그럴 때마다 고희영 감독은 제주어와 표준어 하나하나가 똑같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주어가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를 깨닫는다 했다.

김선희 작가도 이에 동의했다. 제주어를 담은 영화, 드라마가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제주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 말했다. 또한 제주어가 처한 상황에서 볼 때 어쩌면 바로 지금이 제주어의 생명에 숨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본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이든 세대의 귀한 말을 소리 사전으로 담아내고, 언어가 살아 있을 수 있게 아래로 흐르게 하는 교육의 방향성도 설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변종수 배우는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 영향력 있는 배우들이 100%의 제주어가 아닌, 표준어와 함께 쓰더라도 거부감만 없다면 제주어 사용의 미래가 밝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무사' 한 마디만이라도 제주어임이 각인된다면 성공한 것이라는 말이다. 또 영화·드라마뿐만 아니라 나아가 어린아이들을 위한 제주어 교육에서도 제주어를 따라하게 만들지 말라고 따끔하게 조언했다. 우리는 말하는 경로와 듣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발음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제주어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어와 표준어가 다르지 않음을 알려 주고 표준어 리듬에 제주어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제주어 포럼 '눌' 행사 단체 사진

돌코망이서 조문 것덜, 곱닥허게 멩그는 일

'아꼽곡 제라진 제주어', '골앙은 몰르곡 봐봐사 아는 제주어', '을큰흔 내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솜진 제주어'를 기억하는 행사 기록은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 한다. 2023년에도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제주학연구센터와 제주어 연구자·활동가들이 펼치는 노력을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 제주바투리

제주어 포럼 '눌'은 제주어 연구자, 활동가들이 모여 제주어 관련 노력들을 공유하고,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 2020년 12월 8일, 〈제주어, 유네스코 소멸 위기 언어 분류 10주년 제주어 포럼 및 기억 행사〉에서 제주어 '눌'을 정례화한 뒤 매년 '제주어·제주학주간'에 맞춰 행사를 열고 있다. 2021년에는 〈제주어 포럼 '눌'-페우곡, 누누곡, 통ᄒᆞ곡〉, 2022년에는 〈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솜지다삼키다〉라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었다.

제주학 관련
도서 기증
수눌음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학 자료실 살레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2022년 6월 제주학 자료실 '살레' 개방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에 제주학 자료실 '살레'를 더욱 의미 깊게 만들고자, 제주학 관련 도서를 기증받는 수눌음을 시작합니다. 제주학 관련 도서라 함은 제주의 인문, 사회, 자연생태 등을 담은 자료집, 보고서, 마을지, 단행본, 사진 등 모든 자료를 말합니다. 제주의 역사와 제주인의 능동적 조사, 연구, 창조 활동 결과물을 한 자리에 모아서 도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제주 관련 도서를 기증 받습니다.

기간	연중 상시
기증 대상	제주학 관련 도서(자료집, 보고서, 마을지, 단행본, 사진 등)
분량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이메일, 우편, 방문 제출 *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 기증자 자택으로 출장 접수도 가능
제출처	jhcho@jst.re.kr 63281 제주시 임항로 278, 3층 제주학연구센터
기증자 특전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되, 10권 이상 기증한 분들은 제주학연구센터 기증회원으로 모셔, 센터 기관지와 발간 도서 등을 보내드립니다.
문의처	제주학연구센터 064-900-1819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특집 2
제주의 큰심방

故김윤수 심방의 숨결을 들여다보다

지난 2022년 9월 2일, 제주의 큰심방 김윤수 선생이 이승을 떠나 서천꽃밭으로 들어갔다. 국가무형문화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기예능보유자인 故 김윤수 심방은 제주 문화의 원류인 민간 신앙과 제차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큰 어른이었다. 그의 노력으로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2009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기도 했다. 이번 호에서는 (사)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회장이었던 제주의 도황수 故 김윤수 심방의 숨결을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

큰심방 故 서재(瑞齋) 김윤수 선생님

(사)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심방의 세계에서는 삼대(큰 대 세 개를 세우는) 틀어 하는 큰굿을 초역례, 이역례, 삼역례 세 번을 올려야 진정한 큰심방으로서의 자격을 얻는다.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예능보유자이신 故 서재(瑞齋) 김윤수 선생님은 마흔 하나, 쉰일곱, 예순 여덟에 세 번의 큰굿을 올려 진정한 큰심방, 큰 어른으로 인정을 받았다. 김윤수 선생님 역시 조상 때부터 이 일을 해온 집안인데 여기엔 재미있는 사연이 얽혀있다. 선생님 집안은 대대로 손이 귀했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6대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풍수들을 불러 묘자리를 써서 지금의 조천리 괴평동에 묘를 조성했다. 그때 지관[風水]이 "이 자리에 묘를 쓰면 자손은 번창하지만 후손 중에 심방 자손이 나오겠다."고 예언을 했다. 그때는 자손이 귀하니 심방이 나와도 좋다 하여 그 자리에 묘를 쓰니, 증조할아버지께서 팔자를 그르쳐 심방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 후로 작은할아버지와 큰아버지 등이 이름나게 심방일을 하였다. 김윤수 선생님은 집안에서 4대째 큰심방으로 이름을 떨쳤다.

김윤수 선생님은 낳아준 어머니가 네 살 때 돈을 벌고 오겠다며 육지로 물질하러 떠나 생이별을 하게 됐다. 그 후 할아버지 품에서 자라 할아버지를 아버지 보듯, 어머니 보듯 하며 같이 살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냇가 큰 왕돌 위에 앉아 "윤수야, 우리 같이 살자."고 말씀하시자, 선생님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고, 할아버지도 함께 울었다. 선생님은 할아버지가 숨겨 놨다 꺼내주는 밥을 먹고, 할아버지 옆구리 옆에서 잠들었으며, 어떤 날은 남의 굴묵 불을 쬐며 지냈다. 훗날 선생님의 나이 열일곱 살에 할아버지께서 위독하여 모두 부른다는 기별이 왔다. 선생님은 특히 정든 손자를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할아버지 입에 숟가락으로 물을 떠놓으며 "할아버지, 윤수 와수다." 하며 울었다. 이내 할아버지는 "어서 오라." 한마디 하시고 끝내 돌아가셨다. 할아버지의 임종으로 크나큰 상실감을 느낀 선생님은 심방일을 포기하고 또다시 방황의 길을 걸었다.

선생님이 열세 살 되던 해 큰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 몸이 아파서 차일피일 하고 있었다. 그때 큰어머니께서 "너도 심방질을 배워서 큰아버지 대를 이으라."고 하시니 열여섯 살 때부터 큰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심방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 악기 치는 것을 배우고 굿 하는 것을 배우면서 좋은 전생 그르치고 심방의 길로 나서게 되었다. 큰어머니와 외삼촌을 따라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다. 선생님은 열일곱 살 삼양에 살던 어느 날 '장성알'에서 천막을 치고 굿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설쇠를 두드리다 깜빡 졸았다고 한다. 그러자 외삼촌이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 매를 때렸다. 이때 선생님은 너무 아프고 서러워 아무도 없는 삼양 바닷가에서 하염없이 비새같이 눈물을 흘렸다. 그때부터 오기로 공부를 했고 덕분에 또래들 사이에서는 잘한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다.

선생님도 몇 번 심방일을 그만둔 적이 있었다. 열아홉 살에 한림에 굿을 하러 갔는데, "새끼심방", "새심방"이

사진: (사)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





진도세계굿페스티벌 (사진: (사)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사진: (사)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라고 놀리는 마을 청년을 두들겨 패주고 달아난 적이 있었다. 이때 이런 멸시를 받으면서까지 굿을 계속해야 하나 싶어 굿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가 방황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 년을 못 넘기고 제주로 다시 내려왔는데, 서울 생활 9개월이 넘자 다시 몸이 아프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굿을 다시 시작하여 무병(巫病)은 치유되었지만, 당시는 심방에 대한 천대가 심했던 때라 마음을 잡지 못하고 스물셋에 군대를 가게 되었다. 군 제대 후 심방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고향에 오니 어느 누가 돈 한 푼 주는 자 없고 옷 한 벌 주는 자 없으니 아무려면 어쩌나하는 마음에 다시 심방일을 하게 되었다. 굿의 기초는 조금 알고는 있었기에 나의 길은 무속에 있구나 하고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어 굳은 각오로 굿을 하게 됐다.

선생님께서 심방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건 스물여섯에 당시 와산당굿 매인심방이었던 고군찬 심방을 만나면서이다. 어느 날 고군찬 심방을 따라 와산에 굿을 가게 되었는데, 고군찬 심방이 "심방의 연을 맺어 의논도 하고, 안팎으로 부모자식 삼아 같이 살자."고 하여 수양아들이 되었다. 고씨 수양어머니로부터 굿 수업을 받아 모든 굿을 다 배우고 그때부터 큰심방으로 이름이 나기 시작했다. 선생님께서 모시고 있던 명도 역시 수양어머니인 고군찬 심방에게서 물려받은 명도이다. 스물아홉에 고씨 수양어머님이 놋쇠를 내어주며 어머님 명도 본메[本型] 놓고 명도를 지으라고 하셨다. 이에 음력 9월 23일에 제주시 동광양 황대장 집에 가서 명도를 만들어 9월 말에 봉개 강씨 집에서 처음으로 큰굿을 맡아 하기 시작했다. 그후부터 소문이 나서 굿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후 선생님은 칠머리당굿 초대 보유자이신 故 안사인 선생님과 함께 제주칠머리당굿의 보존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1980년에 제주칠머리당굿이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을 받고, 1986년에 칠머리당굿보존회가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보유단체로 지정될 수 있었다. 선생님은 칠머리당굿보존회 부회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이수자로 활동 중이던 1990년에 안사인 선생님이 타계하여 조교, 예능보유자 후보자로서 보존회장직을 계승하여 활동하다, 1995년 6월 1일에 예능보유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후 제주칠머리당굿의 전승 보전과 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수많은 공연을 하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제주의 아픈 역사인 4 · 3으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해원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제로서의 사명으로 받아들였고, 역사의 소용돌이에 스러져간 수많은 영혼에 대한 위령의 굿도 집전을 하였다.

선생님은 제주도에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재를 위한 공간 마련을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였다. 이에 2004년 제주시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을 건립하게 되면서 제주의 무형문화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6년에 국가지정 명칭인 제주칠머리당굿을 제주칠머리당영등굿으로 변경하였다. 제주칠머리당이라는 명칭은 실제 모습과 맞지 않아 정확한 명칭 사용이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2009년에는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의 전통문화적 가치와 전승보전의 노력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영광을 얻었다.

선생님께서 늘 강조했던 것은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계승이었다. 선생님은 보유자가 되시면서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민속 신화와 전통적인 모든 굿의 원형 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면서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 올바르게 계승 발전하도록 이수자 및 일반전수자에게 매주 전수교육에 정성을 다 하였다. 더불어 제주칠머리당영등굿만이 아닌 제주 굿에 대하여도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전승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제주바투리

참고 자료
故 서재(瑞齋) 김윤수 선생님이 남기신 말과 글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영등굿(책임정리 및 해설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열두본풀이자료집(문무병 저)

선생님, 큰심방 김윤수 선생님

김희숙 (무용가)



사진: (사)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김윤수 선생님을 처음 만난 것은 1980년대 후반, 건입동 칠머리당에서 벌어진 행사였습니다. 그 무렵 나는 제주시립예술단과 제주도립예술단으로 이어진 안무자 활동 속에서 제주 무속에 새삼 관심을 갖게 되었고, 칠머리당영등굿 예능보유자인 안사인 선생님의 굿판에도 종종 찾아가곤 했습니다. 안 선생님은 내 춤의 은사인 송근우 선생님과 절친한 사이여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터였습니다. 그때 김윤수 선생님은 영등굿 전수자로서 안 선생님을 보필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 봄에 제주도립민속예술단(제주도립무용단의 전신)이 정식 발족하고 내가 상임 안무자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창단 공연으로 〈생불화〉를 기획했는데, 이 작품은 제주 무속 신화에 바탕을 두고 창작한 무용극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속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한 작업이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사인 선생님이 타계하시는 바람에 그분의 자리를 김윤수 선생님이 이어받게 되었고, 〈생불화〉 공연에 따른 굿춤에 대해서도 많은 지도편달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진: (사)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이렇게 돈독해진 인연은 그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제주도립무용단은 재정이나 시설 따위가 열악한 형편이어서 제대로 설비도 갖추지 못했고 보답도 해드리지 못했지만, 도움을 청하면 선생님은 무용단이 자리잡은 문예회관까지 직접 오셔서 춤사위를 펼쳐 시범을 보이고 소리로 장단을 맞추며 단원들에게 굿춤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덕분에 도립무용단은 레퍼토리가 다양해졌고 활동도 더욱 풍성해졌지요.

제주도립무용단은 성장할수록, 그 이름에 값하기 위해서라도 제주적인 소재를 춤으로 만들어 무대에 올릴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제주 민속과 무속의 양 갈래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민속 쪽은 송근우 선생님께 배운 '해녀춤'과 '물허벅춤' 등을 토대로 소화할 수 있었으나, 무속 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미흡했습니다. 그 모자란 구석을 채워준 분이 김윤수 선생님입니다. 필요가 생기거나 마음이 내킬 때마다 사라봉 기슭의 영등굿 전수관을 찾아가면 선생님은 언제나 단정한 모습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오빠 없이 자란 내게는 그야말로 든든한 오라버니 같았지요.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무속 세계에 대한 나의 이해도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무용(춤)은 무속(굿)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춤사위를 펼쳐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굿판의 무당춤은 푸닥거리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아직은 춤이라는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지요. 그 작업을 내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굿판이라는 좁고 단순한 공간에 한정된 동작을 무대라는 좀더 역동적인 무대에 올려, 정형과 부정형을 넘나드는 춤사위로 재구성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아이디어는 무용단의 공연물로 구현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굿춤을 좀더 체계화하려면 본격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1998년 늦깎이로 중앙대학교 대학원에 무용 전공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석사 논문은 『제주 칠머리당굿 12제차에 나타난 무용 연구』였는데, 칠머리당굿을 주제로 택한 이유는 이 당굿에 제주인의 삶과 의식 세계의 한 토대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김 선생님의 도움과 격려가 없었다면 이런 주제에 감히 도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학위를 받으려면 졸업 작품 발표가 필수였는데, 발표회는 〈김희숙 제주굿춤〉이라는 이름의 공연으로 2000년 늦가을 어느 호텔에서 가졌습니다. 칠머리당굿은 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한 데다 굿춤의 구성상 출연자도 여러 명 필요했는데, 칠머리당영등굿의 제2대 예능보유자인 김윤수 선생님은 직접 수심방으로 출연하여 굿과 춤이 어



사진: (사)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우러진 마당을 멋지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고마움은 이루 다 표현할 길이 없었지요.

칠머리당영등굿은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각광을 받았지만, 그 영광의 그늘에는 주변의 질시와 몰이해로 인해 고초를 겪은 김윤수 선생님의 아픔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칠머리당과 영등굿을 지키려고 애쓰신 선생님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고별식 자리에서 진혼무라도 추어달라는 청이 왔을 때, 나는 가눌 수 없는 슬픔 중에도 선생님께 편지를 써서 그동안 속에만 새겨둔 고마운 마음을 이제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래에 덧붙인 글이 그것입니다. 영등굿 전시관 마당에서 봉행된 고별식 때, 선생님을 떠나보내는 내 심정을 춤사위와 더불어 글에도 담아 선생님 가시는 길에 깔아 드렸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큰심방 김윤수 선생님.
결국은 그렇게 가셤수꽈?

선생님의 쾌차를 그토록 빌었건만
그 기도와 염원도 부질없이 무너졌으니
이 속절없는 슬픔을 어떵허코마씸.

개똥밭에 뒹굴어도 이승이 낫다는데
그 먼 저승엔 무신 거 허젠
그토록 서둘렁 가십디가?
평생 동반자인 사모님과 아이들, 제자들, 친구들…
선생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많은 이들을 남겨두고
그리 총총 떠나시다니,
이 황망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합니까?

춤에 굿을 접목시키면 좋겠다 싶어
굿을 배우러 찾아뵐 때마다
오빠 없는 저에게 늘 오라버니같이
살갑게 대해주던 선생님.
그렇게 선생님께 배운 덕에
제 춤에 굿을 가져와 굿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춤사위를 선생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니
사뿐사뿐 밟고 가시옵서.

그곳 서천꽃밭에 가시거든
먼저 가신 조상님들도 만나고
안사인 선생님도 만나서 반갑게 술잔도 나누고,
흥이 나걸랑 덩실덩실 춤사위도 한 자락 펼치십서.
그러다 가끔은 이 아래 세상도 내려다보멍
눈 찡긋, 입술 실룩, 콧구멍 벌렁
몸짓이라도 보내줍서.
그러면 우리도, 한 줄기 바람이나 빗방울 소리에,
그게 선생님의 인사인가 여겨 하늘에다 절을 올리쿠다.

선생님, 큰심방 김윤수 선생님,
이제는 다시 볼 수 없고
다시 불러볼 수도, 다시 손잡아볼 수도 없는 선생님,
오라버니 같은 선생님을 만나
큰 사랑과 가르침을 받으며 살았으니
너무도 고맙고 행복합니다.
부디 영면하시고, 극락왕생하시옵서. 제주바투리

제주 도황수 큰심방, 김윤수의 생애와 무업

강소전 (제주대학교 강사)



사진: (사)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김윤수(金允洙) 심방은 1946년 음력 7월 9일 제주시 이도동에서 태어났다. 집안의 원래 고향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이다. 부친 김성년과 모친 홍명화의 자식 2남 2녀 가운데 장남이다. 군을 제대한 뒤 역시 심방인 이용옥과 혼인하여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병술생(丙戌生) 김윤수는 지난 2022년 9월에 숙환으로 77세에 타계하였다. 근래 10여 년간 여러 명의 전통적인 심방들이 우리 곁을 떠났는데도 그가 있어 현장의 굿판이 든든하였는데, 이제는 그까지 별세하여 황망함이 더욱 크다. 고희(古稀)를 넘기며 심방으로 살아온 세월, 김윤수는 제주도의 큰심방이었다. 심방 가운데서도 가장 큰심방인 '도황수'[都行首]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무속 역사에 길이 한 자리를 차지할 이름이다.

김윤수는 심방 집안의 자손이었다. 그는 4대째 무업을 이

었다. 그의 집안에 심방 자손이 나오게 된 내력이 전한다. 김윤수의 6대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고조부가 묘터를 보기 위하여 아는 지관을 데려갔다고 한다. 지관이 한 장소를 가리키며 그곳에 묘를 쓰면 자손은 많이 생기지만 심방 자손이 나오겠다고 말하였다. 당시에는 자손이 귀하였던 모양인지 고조부는 심방 자손이 나와도 좋으니까 그곳에 산을 쓰게끔 해달라고 해서 결국 묘를 만들기로 하였다. 지관은 하관 시간이 되면 서쪽에서 굿하는 소리가 날 것이고 그때 하관을 하라고 하였다. 하관 시간이 되니까 정말 '궷드르'(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고평동) 마을에서 굿 소리가 났다. 그래서 하관을 하였는데 그 뒤 증조부 때부터 무업을 시작하였다. 친가 가계 전체를 따지면 모두 10여 명의 심방을 배출하였다. 김윤수의 외가 역시 외조부 때부터 무업을 한 집안이었다.

김윤수는 10대 시절부터 무업에 들어섰다. 그를 처음 무업의 길로 이끈 이는 문옥선 심방이다. 문옥선은 김윤수의 큰아버지 김천년 심방의 둘째 부인이다. 문옥선은 김천년의 자식들이 무업에 관심이 없자 그에게 큰아버지 대를 이으라고 하였다. 그는 13세 무렵부터 문옥선을 따라 굿판에 다니기는 하였지만 무업을 하지 않으려 하였다. 본격적으로 무업을 하게 된 것은 16세 때부터다. 하지만 당시 심방에 대한 차별이 심한데다가 당국의 단속도 심하여 마음의 갈등도 많이 겪고 방탕하게 지내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다가 다시 아프기 시작하였고 군 제대 뒤에 계부인 양금석 심방의 권유에 따라 무업을 본격적으로 다시 하였다. 이후 김윤수는 당시 조천읍 신촌리에







사진: (사)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살던 고군찬 심방을 수양어머니로 삼아 함께 일을 따라다녔다. 수양어머니의 배려로 거주지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로 옮겼다.

김윤수는 심방으로 성장한 뒤 타계할 때까지 줄곧 제주도 무속의 한복판에 자리하였다. 29세에 처음으로 제주시 봉개동 강 씨 단골의 굿을 맡아 스스로 굿을 하게 되었다. 그 뒤로는 점차 심방으로 이름이 나서 굿을 활발하게 하였다. 첫 신굿은 1986년 신촌리 자신의 집에서 14일 동안 진행하였다. 주요 단골판은 제주시 봉개동과 조천읍 와산리, 신촌리, 와흘리, 조천리, 선흘리 등이었다. 한편 1995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의 보유자가 되었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1980년에 안사인 심방으로 첫 보유자로 하여 지정된 굿이다. 김윤수는 안사인과도 일찍부터 굿을 함께 다니던 사이였다. 1981년에 보존회가 결성되고 1986년에 보존회가 문화재 보존단체로 지정되면서 그는 안사인과 함께 많은 활동을 하였다. 안사인이 세상을 떠난 뒤 후계자가 되어 제주칠머리당영등굿과 제주시 건입동의 신앙민을 돌보는 명맥을 이었다.

심방은 제주사람 삶의 역사를 어루만지는 이다. 심방은 제주에서 무당을 이르는 말이다. 이미 『월인석보』(1459년)와 『능엄경언해』1462년)라는 15세기 문헌에 심방이라는 한글 표기가 있다. 17세기 초 이건(李健)의 『제주풍토기』와 18세기 초 이형상(李衡祥)의 『남환박물』에는 심방과 무업의 기록이 있다. 심방의 오랜 역사를 알 수 있다. 심방은 신앙민과 함께 같은 마을에 살며 크고 작은 굿을 한다. 심방은 신과 신앙민을 연결하여 기원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굿을 하면서 신앙민의 소망을 신에게 전달하고 여러 형태의 점을 쳐서 신의 뜻을 확인하여 신앙민에게 전달한다. 심방은 스스로 신앙민인 단골들의 변호사라고 자처한다. 신에게 해당 단골의 갖은 어려움을 잘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방은 제주도 무속 전통을 지속하는 종합 예술가들이기도 하다. 심방은 입무 뒤에 수련을 거쳐 평생 무업에 종사하는 이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동일한 생활을 하면서도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선택된 존재들이기도 하다. 심방이 무속신앙의 핵심적 존재인 까닭은 단골과 신의 사이에서 양자를 연결하는 필수적인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심방은 신앙민인 단골의 의뢰로 신과 교통하고자 하는 여러 종류의 의례를 행한다. 본풀이를 비롯한 여러 유형의 무가를 익혀서 부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굿하는 내내 춤추며 노래한다. 게다가 심방들은 누구나 무악기를 연주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제주도 굿에는 악사가 따로 없는 탓에 심방이 곧 악사이다. 심방은 노래, 무용, 연주, 무구 제작 등을 모두 감당하는 예인(藝人)의 면모를 갖추었다.

제주도 도황수 김윤수 큰심방 역시 제주사람들의 삶을 돌보고 전통문화를 굳건히 간직하여 지켜온 이다. 단골 신앙민 각자 집안마다 자손의 탄생과 성장, 안택과 치병, 조상의 천도 등을 기원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 해녀 같은 생업공동체나 마을공동체의 무사안녕과 풍요를 위한 굿을 맡아 기꺼이 그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였고 공동체의 연대를 이끌어내는 데 힘을 기울였다. '제주4·3'으로 대표되는 신앙민들의 역사적 상처도 어루만졌다. 그런가 하면 제주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도 앞장서 왔다. 제주시 축제 '탐라국입춘굿'이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국내와 해외의 여러 전통문화 행사에 참여하여 제주의 전통적인 무속을 선보였다. 그를 찾아온 학계의 많은 연구자들을 응대하여 제주굿의 다양한 면모가 학술적으로 규명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김윤수는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를 맡아 30년 가까이 제주도 심방을 양성하고 지도하였다. 현재 제주도의 전통적인 심방이 날로 줄어들고 있는 사정을 생각하면 보존회의 역할은 매우 컸다. 그와 동시대 여러 심방들이 보존회에서 함께 활동하였고, 이후 적지 않은 심방 후보자들이 보존회를 거쳐 정식 심방으로 성장하였다. 김윤수는 제주의 심방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 현장의 중심에 있었다. 심방과 무업의 유래를 전하는 '초공본풀이'라는 신화가 있다. 심방은 누구나 '초공본풀이'를 자신들 무업의 내력으로 삼고, 본풀이에 근거를 둔 '멩두'라는 무구를 조상으로 섬긴다. 초공본풀이를 생각한다면 심방들은 모두 형제와 같다. 이제 인간 세상에 남아있는 심방 형제들은 김윤수를 초공본풀이의 신화 세계로 떠나보냈다. 이미 가 있는 다른 고인 심방들처럼 이제는 그도 '옛 선생'으로서 무업의 신들과 함께 제주의 굿판마다 자리할 것이다. 제주바투리

해녀노래 속에 담긴 제주인의 삶

이성훈(전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겸임교수)

병자수호조약(1876) 때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일본인 잠수기 어민들이 제주도 연안 어장으로 몰려와 전복, 해삼, 소라 등을 남획하면서 어장이 황폐화 되었다. 이에 제주해녀들은 더 나은 소득을 얻기 위해 한반도로 출가(出稼) 물질을 나갔다. 일반적으로 봄에 다른 지방으로 출가하여 5~6개월 정도 물질을 하고 가을 추석 무렵에 귀향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출가 물질 나간 곳에 정착하기도 했다. 해녀노래가 제주도와 한반도 해안 지역에서 전승되는 이유다.

한반도 출가 시 서해안 방면은 화탈도와 추자도를 경유하여 울돌목을 거쳐서 갔고, 동해안 방면은 소안도를 경유하여 남해안 다도해를 따라서 부산 영도에 기착했다. 제주해녀들이 가장 많이 진출했던 지역은 경남 울산과 기장 지역이었다. 울산과 기장은 당시에 가장 경제적 가치가 큰 우뭇가사리와 미역 어장이었기 때문이다. 해녀노래 사설에 부산 영도로 가는 바닷길에 있는 섬과 바다 이름, '화탈도', '울돌목', '부산', 영도', '울산' 등의 지명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다.

추자도 북쪽 바다를 이른바 '육지바다'라고 하는데 반하여 추자도 남쪽은 '제주바다'라고 하며 물결이 거칠다.



불턱에서 불을 쬐는 제주해녀들 (사진: 1960년대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해안에서 이승철 촬영)





해산물을 채취하고 배로 돌아오는 모습 (사진: 2002년 경남 통영시에서 이성훈 촬영)
입수 대기 중인 해녀들 (사진: 2002년 경남 통영시에서 이성훈 촬영)

특히 추자도 부근의 화탈도나 사수도 해역은 조류가 세고 돌풍이 갑자기 일어나 표류하거나 해난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위험한 바다이다. 이들 해역에 이르면 선주는 항해의 안전을 빌면서 배 위에서 고사를 치르기도 했다. 해녀노래 사설에 구연 현장인 바다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제주바다에서의 체험을 드러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주해녀들이 한반도 서해안 지역으로 출가 물질을 갈 때 반드시 거쳐서 갔던 전라남도 진도와 해남군 화원반도 사이에 있는 '울돌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살이 센 곳으로 협소한 해협을 따라 빠른 물살이 지나가는 곳이다. 울돌목 바다의 현장성이 해녀노래 사설에 투영되어 "요목 조목 울돌목가"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정착되었다고 본다.

출가 해녀들은 출가 물질 나간 지역에 방을 얻어서 한 방에 두셋이 함께 자취하며 살았다. 민가가 없는 해안일 경우에는 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다가 오막살이를 짓고 지내는 경우도 드물게 있었다. 여러 날 동안 배 위에서 먹고 자면서 물질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출가한 지역의 주민들 가운데는 호의적인 지역민이 있었는가 하면 '보작이년', '제주년' 하며 차별과 구박하며 적대시하는 지역민도 많았다. 객주의 착취, 입어료, 조합세, 뱃사공 삯, 뱃세, 화목대, 판매수수료 등을 제하고 나면 빈손으로 귀향하는 해녀도 더러 있었다. 한 해 더 벌어서 귀향하려고 겨울철에도 물질하며 남아 있는 해녀를 '과동녀(過冬女)'라고 한다. 산도 설고 물도 선 한반도나 해외 공간은 단지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한 공간으로만 인식하고 한반도로 출가물질은 나간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노래하는 이유다.

한반도에 정착한 해녀들은 제주도를 동경한다. 또한 현재 거주하는 타향에 정착하지 못하여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음을 노래한다. 즉, 제주해녀에게 한반도는 기회의 공간이면서 이질적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된다. 바닷속에는 금은보화처럼 귀한 해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물질 기량이 모자라 채취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노래하는가 하면, 자신의 부귀영화가 아닌 자식의 입신양명을 위해 물질작업의 고생을 감수한다고 노래한다.

물질 작업장까지 헤엄쳐 나가서 하는 물질인 이른바 '곳물질'을 나갈 때나 돛배를 타고 노를 젓고 나가서 하는 물질인 '뱃물질'을 나갈 때 조류의 흐름과 바다의 상황을 노래하기도 한다.

해녀노래는 물질작업과 노 젓는 노동, 해녀들의 삶과 한반도 출가 등 이른바 노동 실태와 해녀의 생애를 노래한 사설이 많다. 해녀노래가 한국의 대표적인 어업 노동요이자 해양 문학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이유다. 제주바투리

제주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과정 연구

오은주 (제주학연구센터 위촉연구위원)

누구나 낯선 환경을 접했을 때 적응하기 위한 저마다의 적응 방법이 나타난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2022년, 세계는 지금 자신이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며, 이는 제주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2018년 한국어 강사로서 다문화 센터에 방문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적응 대상자 중 하나인 결혼이주여성을 처음 만났다. 약 3년 동안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통계 수치(2021년 기준 외국인과의 결혼 비율이 7.7%로 전국 5위로 나타남[1]) 이외의 부분이 관찰되었다. 그것은 결혼이주 목적에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제주 지역 환경에 정착하기 위해 각자 적응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이 문화적응 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생겼다.

연구 동기가 생기고 나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해 보았다. 제주 지역의 문화적응연구 관련 논문은 여러 편이 있었으나, 그것들은 주로 제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 제주 전 지역을 연구한 논문은 없었다. 또한 기존 논문들은 문화적응 기초 설문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되었지만, 실제로 제주에 적응하며 살아온 결혼이주여성의 현실과 연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필자는 '제주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국적과 적응이 관계가 있는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요인은 무엇인가?', '결혼이주여성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문화적응 하는가?'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고, 순차적 설명 혼합연구 방법(Explanatory Sequential Mixed Method: 양적 연구를 바탕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 결과를 보완하는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우선 양적 연구에서는 존 베리(John. w. berry)[2]와 김연수[3]의 문화적응척도 문항을 적용한 설문지를 구안하여, 제주 전 지역의 결혼이주여성 151명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문화적응 유형, 한국생활 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국적별 적응유형과 문화적응 요인과의 관계를 도출하고자 SPSS26.0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빈도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어지는 질적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 결과에서 밝혔던 이외의 적응요인을 확인하여 보완하고 문화적응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반구조화 설문지를 구안하여 8개국 결혼이주여성[4]의 인터뷰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이후 양적·질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국적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요인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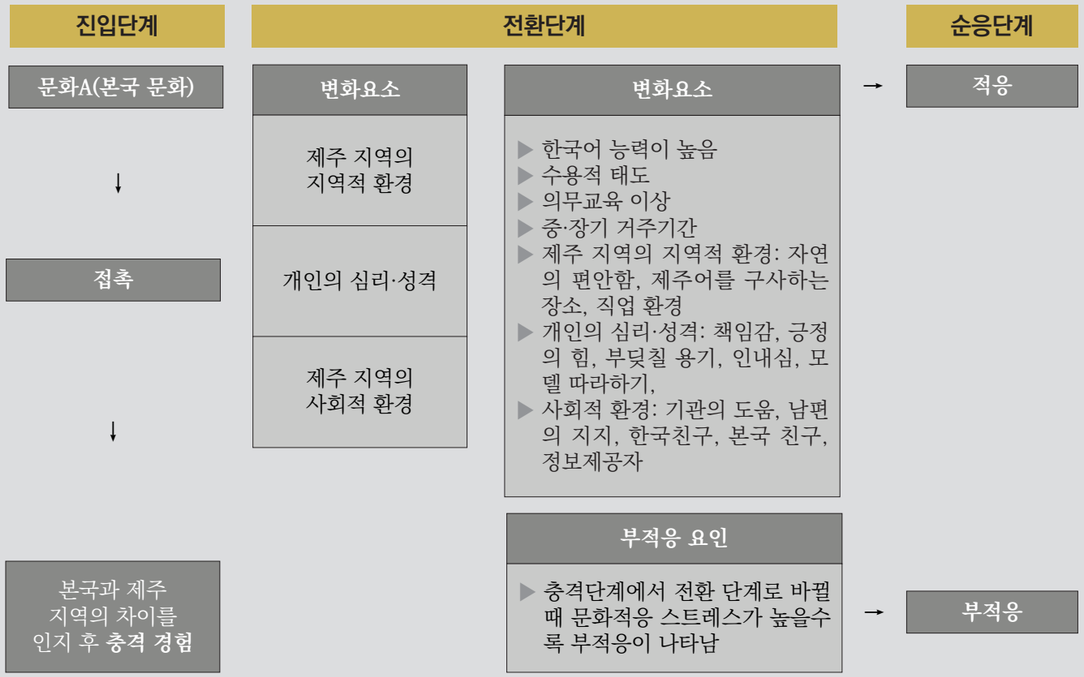
양적 연구 결과, 다국적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과 부적응은 국적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적응 요인은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의무 교육 이상을 이수할수록, 결혼이주여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문화적응 능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질적 연구 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 과정이 거주 경과에 따라 '진입 단계 → 전환 단계 → 순환 단계'로 나타났다. 진입 단계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본국 문화와 새로 이주해 온 제주 환경이 접촉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때 결혼이주여성은 공통적으로 문화충돌을 경험하였다. 전환 단계에서는 문화를 수용하는지 혹은 수용하지 않는지에 따라 순환 단계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연구 대상자들에게 내재한 심리·사회문화 특성이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는 지역', '함께하는 동료 및 가족의 지지', '개인적 경험에 따른 가치관 변화'로 밝혀졌다. 이러한 요인은 결혼이주여성이 문화 차이를 맞닥뜨릴 때마다 그에 따른 적응 전략을 구상하면서 점점 새로운 문화로 적응해 나가는 순환구조를 갖는다. 즉, 이러한 적응 과정은 완성의 의미가 아닌 좌절과 타협이 반복적으로 순환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결혼이주여성들이 문화적응·문화 부적응의 전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성장하려는 태도가 적응에 기반이 된다는 것도 밝혀내었다.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이 적응과정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적응 정도가 높아졌다. 특히 진입 단계에서 전환 단계 사이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부적응 상황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개인이 갖는 가치관과 성격과 맞물리게 되면 무기력 상태가 장기화되어 문화적응 포기상태에 이르게 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요인과 문화적응 과정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도 제주 지역의 한 일원으로서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혼이주여성 측면에서 논의가 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양적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적어 다소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연구를 진행해나갈 것이다. 제주바투리



[그림] 제주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요인 및 문화적응 과정

---

* 이 글은 필자의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다국적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적응과정 연구』(2022)를 요약하였다.

1) 통계청. 2022. 『202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6): 697-712.

3) 김연수. 2011.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적응척도 개발연구". 『여성연구』 81(2): 103-146.

4) 8개국은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일본, 카자흐스탄, 태국, 몽골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이다. 선정 기준은 양적 연구에서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응답자 비율이 높아 결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거주자 수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질적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제주도 방사용 탑에 담긴 제주사람들의 소망

고수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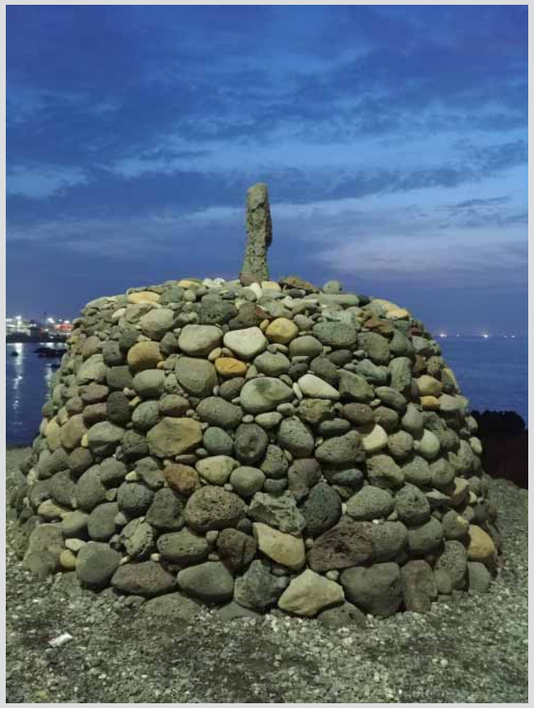
이호포구에서 연대포구까지 길게 이어져 있는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따라 걷고 있으면 중간쯤에 '내도동 방사탑'이 바다를 향해 서 있다. '알작지'란 명성에 걸맞게 동글동글한 돌들을 쌓아 만든 내도동 방사탑은 '거욱대'라고도 하는데, 바다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부정(不淨)을 막기 위해 세웠다고 안내판에 설명한다. 원래 6기의 방사탑이 있었는데 원형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탑이 유일하다고 한다. 아마 6기 모두 바다에서 들어오는 부정과 액운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세웠을 것이다. 이들은 어떤 부정들을 막고 싶었을까?

내도동 뿐 아니라 마을로 들어오는 액운을 막아서 마을과 공동체의 보호와 편안을 기원했던 방사용 탑은 제주 마을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 강정효는 방사용 탑과 관련되어 있는 마을 지명까지 조사하여 103개 마을에 방사탑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1)]

이는 방사탑 외에도 다양한 방사 신앙물들이 마을 곳곳에 세워졌을 것이라는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 현재 70기 정도의 방사탑이 조사되었지만 이 중 17기가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제주도의 방사용 탑들은 탑 정상부에 무엇을 세워놓았는지에 따라 '답', '거욱대', '까마귀', '매자재기', '돌하루방' 등 마을마다 부르는 호칭이 다양하다. 이를 통칭해서 '방사탑'이라고 한다. 마을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厄, 煞)을 막는다는 방사(防邪)'와 '허한 곳을 채운다는 비보(裨補)'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점에서 비보풍수(裨補風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방사탑은 전염병 예방, 화재 예방, 해상 안전, 우마번성, 홍수 방지 등의 역할도 하였다.

비보풍수는 지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터전을 가꾸는 데 지향점을 두는 것이다. 전근대 국가는 산천의 도움을 받아 나라의 안전과 풍요를 위해 인위적으로 산을 만들거나(造山), 땅의 기운을 누르는(壓勝) 등의 국토관리를 하였고, 각 지역의 마을 공동체는 다양한 신앙물을 세워 평안을 기원하였다.



내도동 방사탑(사진: 고수미)

1) 강정효. 2008.『제주거욱대-제주자연마을의 방사용 돌탑보고서』. 각출판사. 2008.



신흥리 방사탑(사진: 국가문화유산포털)

제주도의 방사탑 역시 과거 도민들의 마을공동체 신앙으로 타 지역의 솟대, 장승, 성황당 등 돌탑신앙의 성격과 유사하며, 방사탑 외에도 방사벽·방사석(石)·숲·연못 등 다양한 방사 신앙체를 만들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마을의 신당(神堂)과 당신(堂神)이 보호를 담당했다면, 방사신앙체는 방어를 담당하는 이중적 방어구조를 만들어 놓아 심리적인 안정과 풍요를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도민의 삶은 자연재해와 늘 맞닿아 있어서 재해를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신앙들이 도민들의 삶과 문화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특히 방사탑은 주민들의 함께 참여해 쌓은 것으로 마을 사람들은 공동의 신앙생활을 통해 공동운명체의 평안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마을 간 단결을 도모하였고,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였다. 이런 점에서 미래 자원으로서의 방사탑에 대한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은 한반도와는 다른 제주 문화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지니게 하였다. 따라서 그 안에 녹아 있는 제주인들의 공동체적 가치를 찾고 활용하는 '제주문화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과제가 제기된다. 특히 방사탑은 위치, 조성 과정과 형식, 기원 내용 등 마을 공동체의 생활문화와 비보풍수 관념이 녹아 있는 역사문화자원으로 다양한 현재적 해석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일례로 신흥리 방사탑에는 신흥리가 평탄한 암반지역이기 때문에 언제나 쫓기듯 허덕이며 살아가야 했는데, 바닷가에 5개의 탑을 세운 후 주민들의 형편이 나아지고 번창하게 되었다는 스토리가 녹아있다. 비보(裨補)의 역할을 하는 방사탑으로 마을이 번창하는 데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했을까?

역사문화자원의 콘텐츠 활용에서 '물질' 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면, 제주의 역사문화자원들은 제주의 문화원형을 해석하고 문화콘텐츠로 활용하여 타 지역과 구별되는 제주 문화의 특수성을 보편적 논리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지역 문화의 콘텐츠 활용이 지역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원천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면, 좋은 콘텐츠가 제주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는 한 방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제주바투리

※ 이 글은 졸고 "제주도 방사탑 축조현황과 문화콘텐츠 활용"(2019.『탐라문화』60: 233~261)을 가필·수정하였다.

2022년 하반기 제주학연구센터 사업 현황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운영 사업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운영

제주학연구센터는 2022 제주학 아카이브 관리운영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버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에 구축하여 대중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자체 생산 자료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역사, 제주어, 민속문화 담당 연구원들의 자료를 집대성하며 아카이빙을 수행하였다. 2022년 최초로 '제주의 마을지' 기록화 사업을 시작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콘텐츠를 구축하고 있으며, 신규 마을지 20여권과 온라인 서비스로 5개 마을 자료를 아카이브로 구축하였다. 2023년에는 제주 전역의 마을지를 수집할 예정이며 최대한 저작권을 확보해 '제주의 마을지'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시민참여형 아카이브를 구축해나가기 위해 제3회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영상 공개 수집을 공모하고 시상(대상2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하였으며 '우리 마을 옛사진' 관련 자료 500여건을 아카이브로 구축하였다.







한편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한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은 심화 과정과 기초 과정으로 나누어 개설하였으며, 심화 과정은 현장 강의 포함 7강, 기초 과정은 8강으로 구성하여 강좌를 진행하였다. 심화 과정에는 지난해 기초 과정을 이수한 18명이 신청 접수하여 15명이 수료하였고, 기초과정에는 32명이 수강 신청하여 27명이 수료하였다. 심화 과정까지 이수한 시민 아키비스트 14명은 센터 사업에 참여하여 아카이브 구축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명실공히 지역학 아카이브 전문 인력 양성 과정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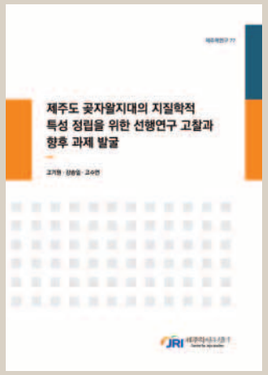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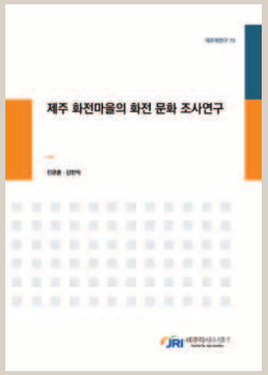
제주학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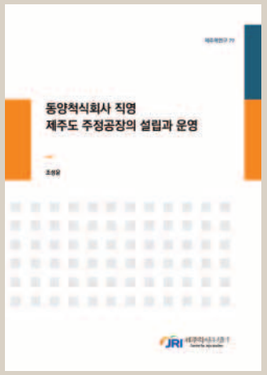
2022 제주학 연구비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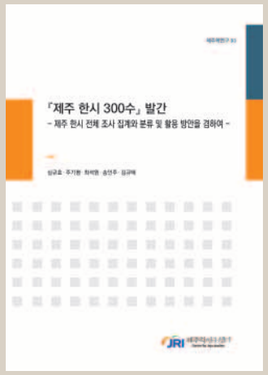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연구 활성화 및 전문 인력 연구 기회 확대를 위해 매년 제주학 연구비를 공모·지원하고 있다. 2022년에는 총 4건이 선정되어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① 제주학 연구 77: 『제주도 곶자왈지대의 지질학적 특성 정립을 위한 선행연구 고찰과 향후 과제』
② 제주학 연구 78: 『제주 화전마을의 화전문화 조사연구』
③ 제주학 연구 79: 『동양척식회사 직영 제주도 주정공장의 설립과 운영』
④ 제주학 연구 80: 『제주 한시 300수 발간』









2022 제주학 총서 출판비 지원 사업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관련 연구결과물 발간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제주학의 진흥을 위한 연구 기반 조성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2022년에는 총 3건(번역서 1건, 총서 2건)의 제주학 총서가 발간되었다.

① 제주학 총서 62: 김대양, 『재일제주인의 문학적 기록, 뼛조각』
② 제주학 총서 63: 고광민, 『제주도구-섬땅의 삶을 일군 지혜』
③ 제주학 총서 64: 김동주, 『전환사회의 새로운 힘, 재생에너지를 공유하라』







※ 이상의 총서는 시중에서 구매 가능

민속문화 연구 및 마을기록화 사업

제주 민속문화 연구 사업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하는 '멸실위기 제주 민속문화 연구사업'에서는 제주 마을공동체의 제의문화, 즉 본향당굿, 포제(이사제) 등 〈제주의 마을제〉 전수조사를 수행하였다. 총 3개년으로 기획된 이번 조사 연구는 총 5명의 연구진이 참여하여 1차년도 제주시 동(洞) 지역, 2차년도 제주시 읍면 지역, 3차년도 서귀포시 지역 조사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3차년도 서귀포시까지 조사 완료되면 그 성과를 정리하여 학술세미나와 특별전시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도 마을제 현장조사 장면



동회천 마을 오석불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제의문화 전승을 위한 지원정책 연구

제주도에서는 지난 2017년에 도의회에서 『마을 전승의례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제주 지역 마을제에 대한 지원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100% 대응자금, 마을공동체 제의문화 전통과 맞지 않는 정산 방법, 당굿과 해녀굿 등에 대한 각기 다른 부서의 지원 등 마을제 전승에 대한 지원금 정책에 여러 가지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지속가능한 마을 제의문화 지원정책을 제시하였다.



해녀문화유산과 면접조사



수산리 시만곡대제 조사

제주해녀 학술대회 및 교류 행사
제주해녀유산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제주학연구센터는 2022년 9월 23일 〈해녀문화 전국 네트워크를 위한 각계 역할과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주해녀유산에 대한 민·관·학계 전문가의 역량을 결집하고 제주 해녀 보전을 위한 정책적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한 자리가 되었다.

서귀포시 동부 지역의 세시풍속 조사
구술로 기록하는 제주의 세시풍속 조사 사업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 지역을 동서남북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 세시풍속을 조사하고 있다. 작년에는 제주시 동부 지역을 조사했고, 올해는 서귀포시 동부 지역의 성산읍 3개 마을, 표선면 3개 마을, 남원읍 3개 마을 등 총 9개 마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자료는 한글로 전사하여 『서귀포시 동부 지역의 세시풍속 구술 자료집』을 발간했다.



2022 마을 기록화 사업(해녀문화조사)

제주 해안 마을이 갖고 있는 제주의 자연 환경과 고유한 유·무형 자원들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특히 제주 해안 마을의 전통 어업인인 해녀 수가 급감하고 있어 해녀 문화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전승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가 시급하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를 선정하여 10여 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세계가 훈디 누리는 제주어’ 제4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제주학연구센터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할 『제4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조례 제2124호)에 따라 5년마다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세계가 훈디 누리는 제주어’라는 기치를 내걸고 8대 정책 과제, 25개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제주어 표기법’ 개정, 제주어 교육 플랫폼 구축, 『제주어대사전』 편찬 및 웹사전 구축, ‘제주어박물관’ 건립 추진 등 4개의 역점 과제를 선정했으며, 투입 예산은 총 16,000백만 원이다. 『제4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에 따르는 정책 과제 및 세부 추진 과제는 향후 5년간 제주어 보전 및 발전을 위해 추진될 것이다.

제주어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방안 연구 진행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어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보고서를 발간했다.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가 2022년 1월 12일 일부 개정되어 제주어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대한 기초 자료 조사 및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한 이 연구에서는 제주 도민과 관광객,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도내외 유사 박물관 사례 조사를 통해 제주어박물관 건립과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5회 『(가칭)제주어대사전』 편찬·자문위원회의 개최 2022 제주어대사전 편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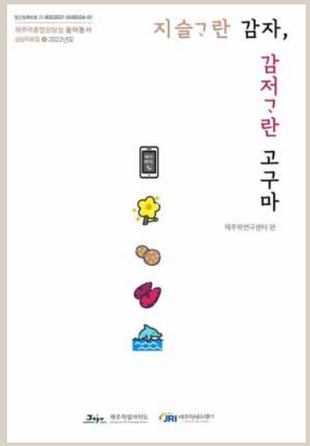
제주학연구센터는 2024년 발간을 목표로 『제주어대사전』 편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5차 년도인 2022년에는 집필위원회의 7회, 자문회의 1회, 편찬·자문위원 회의 1회 등 총 9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5,000여 개의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 수정, 용례 추가 작업 및 사진 300여 점을 멀티미디어 자료로 구축하였다. 한편 12월 14일에는 ‘제5회 『(가칭)제주어대사전』 편찬·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제주어대사전 편찬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어귓돌이 선셍이여”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





제주학연구센터는 2022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으로 제주의 석공과 관련된 어휘, 민속 등을 조사하고 자료를 구축했다. 제주 지역 돌 문화와 관련한 이번 조사 사업은 사라져 가는 제주의 석공들을 대상으로 산담, 밭담, 축담 등을 축조했던 이야기를 비롯하여 제주 돌과 관련된 제주어를 채록하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한림읍 협재리, 애월읍 유수암리·납읍리, 대정읍 인성리·안성리, 조천읍 함덕리·북촌리, 표선면 성읍리, 구좌읍 송당리, 성산읍 난산리, 제주시 노형동 등 총 11개 지역에서 과거 석공 일을 했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정리하여 구술 자료집을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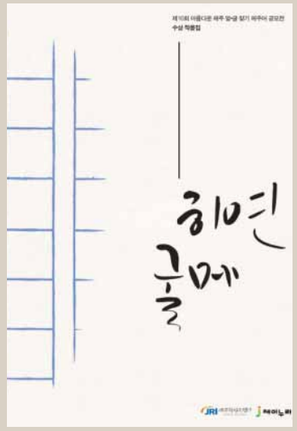
2022 제주어종합상담실 들어봅서 상담 자료집 『지슬ᄀᆞ란 감자, 감저ᄀᆞ란 고구마』 발간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어종합상담실은 한 해 동안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네 번째 상담 자료집 『지슬ᄀᆞ란 감자, 감저ᄀᆞ란 고구마』을 발간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상담한 465 건의 상담 내용을 단어, 구와 문장, 뜻풀이, 표기 등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제주어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상담해 주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어종합상담실은 전화, 전자우편 상담뿐만 아니라 제주학연구센터의 누리집 게시판을 통한 제주어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제주어가 활용된 드라마의 자막 표기, 도내 대형 호텔 제주어 체크인 서비스 안내 문구, 도내 경찰서 안전 운전 수칙, 인권선언문 제주어 대역 등의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제10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 제주어 공모전 개최

제주학연구센터는 인터넷신문 제이누리와 함께 〈제10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 제주어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5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접수된 총 146편(학생부 99편, 일반부 47편)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김정미 씨의 〈히연 굴메〉 외에 18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11월 4일에 열렸으며, 이날 공모전 수상 작품집 『히연 굴메』를 배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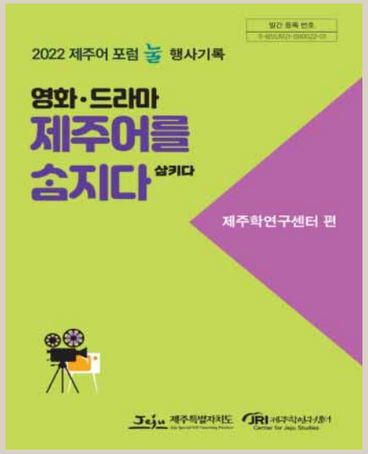




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숨지다(삼키다) 2022 제주어 포럼 '눌' 개최

제주학연구센터는 10월 7일 제주문학관 3층 대강당에서 〈2022 제주어 포럼 '눌'-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숨지다(삼키다)〉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제주어 관련 연구자, 활동가 등과 함께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올해는 영화, 드라마 속에 나타나는 제주어를 주제로 꾸려졌다. 가수 루아의 제주어 노래 공연을 시작으로 고두심 주연의 영화 〈빛나는 순간〉을 상영했고, 영화와 드라마 속 제주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좌담회가 열렸다. 행사장 앞에는 영화·드라마 속의 제주어 대사를 전시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한편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행사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하고자 『영화 · 드라마, 제주어를 숨지다(삼키다)』 행사 기록집도 발간했다.





제주역사 편찬 사업

『승정원일기 제주기사(V)-英祖代(1735~1759)』 발간 『승정원일기』 번역 편찬 사업



제주학연구센터는 2016년부터 조선시대 1급 관찬사료인 『승정원일기』에서 제주기사(제주(濟州)', '정의(旌義)', '대정(大靜)', '추자(楸子), 탐라(耽羅)' 5개 주제어)를 발췌해 번역·편찬하는 사업을 6년째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승정원일기 제주기사(V)-英祖代』를 발간했고 영조 36년(1760)~영조 52년(1776) 동안 약 1,500여건에 달하는 제주기사를 발췌하여 역주 및 주석 작업을 수행했다. 『승정원일기』와 같은 귀중한 관찬 자료에 담긴 제주의 옛 기록을 확인하고, 이를 역주 및 주석하여 지속적으로 제주 역사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축적할 예정이다.

『대포동·도순동·회수동·하원동 소장 節目』 발간 고문서 해제 발간 사업



제주학연구센터는 서귀포시 대포동, 도순동, 하원동, 회수동 4개 마을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중 절목(節目) 자료를 조사해 정리했다. 4개 마을에서 소장 중인 절목 자료는 대부분 구폐절목(捄弊節目)으로 1794년(정조 18)에 발급된 대포동 소장 『大浦里年例應行卜馱磨鍊節目』부터 1904년(광무 8)에 발급된 회수동 소장 『望京樓修補錢排眞節目)』까지 정리해 자료집에 수록했다.

도민과 함께 제주 고전을 읽는 시간 2022 제주 고전 강독회 운영

제주학연구센터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2022 제주고전 강독회〉를 운영했다. 2018년부터 진행된 〈제주고전 강독회〉는 탐라의 역사문화 관련 한문 원전에 관심 있는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제주 고전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새 강좌를 추가 개설해 3개 강좌(초서의 이해, 다시 읽는 제주사, 한재북학일기 강독)를 운영했다.





호적 자료를 통해 전근대 인구 정보를 구축하다
제주 호적 자료의 기초적 연구

제주학연구센터는 그간의 조사된 호적 자료를 활용하여 미진했던 각 마을별 호적에 기재된 마을 호구 현황을 1차 전수 조사하고, 전근대 인구 정보를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특히 기존에 전수 조사된 마을 이외에도 애월읍 수산리 등 호적 자료가 남아 있는 마을을 추가로 조사하여 인구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 각 마을별 호적중초가 남아있는 마을의 특성과 더불어 식년별 호구 정보 즉, 원호수, 인구수, 남녀인구수, 노(老)·약(弱)·장(壯) 인구 수 등을 정리해 보고서에 수록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제주의 기록유산 호적중초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제주 호적중초 문화재적 가치 재조명을 위한 학술세미나〉 참여

제주학연구센터는 2019~2020년, 『제주 호적중초의 문화재 지정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으로 도내 호적중초를 비롯한 고문서 자료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2022년 11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주최한 〈제주 호적중초 문화재적 가치 재조명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어 임승희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이 수행기관으로서 '제주 호적중초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제주학을 위해 함께 하다
제주매일, 제주천연염색기업지원사업단, 제주천연염색협회와 업무 협약 체결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의 저변 확대와 성장을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2년 10월 31일에 제주매일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제주 문화와 제주어의 전승 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2022년 12월 2일에는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제주천연염색기업지원사업단과 제주 천연염색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세 기관은 제주 감물염색 전통문화의 발굴, 계승, 산업화를 통해 상호 발전과 이익을 도목하기로 약속했다.

문화재 속 제주 인물들의 모습
제주학 인물사 강좌 '문화재로 배우는 제주 인물사'

제주학연구센터는 2022년 8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문화재로 배우는 제주 인물사'를 주제로 〈제주학 인물사 강좌〉를 운영했다. 의귀리 김만일 묘역과 김만일, 『표해록』과 장한철, 『탐라순력도』와 이형상, 오현단과 김정, 『세한도』와 김정희 등 제주도가 간직하고 있는 문화재와 이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학의 꽃, 도민과 함께 피우리라
제주학 명사 초청 강연

제주학연구센터는 도민들과 함께 제주학 연구 성과를 함께 나누기 위해 〈제주학 명사 초청 강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2022년 7월 29일에는 해녀노래 연구자인 이성훈 박사(숭실대)가 '해녀의 삶과 그 노래'라는 주제로, 8월 26일에는 김영관 교수(충북대)가 '제주 고대사를 바라보는 시각', 10월 28일에는 정세호 관장(방림원)이 '제주도와 곤충연구'라는 주제로 자신의 연구 성과와 연구 과정에서 벌어진 일화들을 도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3년 주요 사업 일정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운영 사업

사업명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 운영
내용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의 마을지' 수집 및 기록화 사업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영상 공개 수집(연중 계속) 제3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심화 과정, 기초 과정)
일정	1월~2월 세부 수행 계획 수립 3월~11월 사진영상 공개 수집, 마을지 기록화 3월~4월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과정 개설 5월~6월 시민 아키비스트 기초과정 개설 10월~11월 '제주의 마을지' 학술세미나 및 특별전 개최 11월~12월 보고서 발간 및 수집 자료 아카이브 구축

2023 제주학 지원 사업

사업명	2023 제주학 지원 사업
내용	• 제주학 연구 활성화와 연구자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학 연구비 및 제주학 총서 출판비 공모 지원 ① 제주학 연구비 지원 공모 ② 제주학 총서 출판비 지원 공모
일정	2월 지원 과제 공모 3월 초 과제 선정 3월~10월 연구 수행 11월 연구보고서 발간

민속문화 연구 및 마을 기록화 사업

사업명	제주 민속문화 연구사업
내용	〈제주의 마을제〉 전수조사 3차 년도(서귀포시) 조사연구 사업
일정	1월~2월 세부 수행 계획 수립 및 연구진 구성 3월~8월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9월~10월 원고 집필 및 학술세미나 개최 11월~12월 보고서 발간

사업명 마을 기록화 사업(해녀 문화 조사)

내용 사라져가는 제주해녀 문화를 기록하기 위해 마을을 지정하여 조사 연구 수행

일정 -2월 마을 선정 및 연구진 구성, 사전 조사
-3월~11월 현장 조사
-12월 보고서 발간

사업명 구술로 기록하는 제주의 세시풍속 조사 사업

내용 제주의 세시풍속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시기별 · 지역별 세시풍속 정리, 자료집 발간

일정 1월~12월

사업명 [협약사업] 제주 갈옷 미래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

내용 제주 갈옷 및 감물염색 전통에 대한 종합적 조사 연구
조사 연구 성과와 영상기록을 통한 제주 갈옷 아카이브 구축
조사 연구 성과를 집약하고 홍보하는 학술심포지엄 개최

일정 2022년 8월~12월 세부 수행 계획 수립 및 연구진 구성, 워크숍
2023년 1월~3월 제주 갈옷 현지 조사(구술채록 포함), 설문조사
3월~6월 제주 갈옷 아카이브 구축 및 보고서 원고 집필
6월 원고 집필 및 학술심포지엄 개최
7월~8월 보고서 발간 및 정산

사업명 [협약사업] 제주도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 사업

내용 제주도 무형문화재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의 전통 및 전승양상 영상기록화

일정 2022년 5월~6월 세부 수행 계획 수립 및 연구진 구성
2022년 7월~11월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 현지조사 및 마을 보존회와 협의, 소리 연습
2022년 11월~12월 보존회 전수활동 촬영 및 보리 파종 부분 촬영
2023년 1월~2월 보리뿌리점보기 및 보리밟기 등 촬영
3월~5월 검질매기(사대소리), 보리타작 촬영
6월 영상 편집 및 최종결과물 제출, 정산

제주어 연구 사업

사업명 『제주어대사전』 편찬 사업

내용 제주어 말모이 작업인 『제주어대사전』 편찬을 위한 집필과 새어휘 조사 작업

일정 1월~12월

사업명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

내용 사라질 위기에 놓인 제주 전통과 관련한 문화와 제주어를 조사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

일정 1월~12월

사업명 제주어 총서 발간 사업

내용 제주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제주어 책자 발간

일정 1월~12월

사업명 2023 제주어 포럼 '눌'

내용 제주어 관련 활동가와 기관, 단체, 학자 등이 교류하며 제주어의 보전 및 전승 방향 논의

일정 10월 6일

사업명 제주어종합상담실 운영 사업

내용 제주어의 전승과 보전, 제주어 능력 향상을 위해 제주어 상담 전화 '들어봅서' 운영 및 전자우편 상담 진행

일정 1월~12월

제주역사 편찬 사업

사업명 『승정원일기』 번역 편찬 사업

내용 조선시대 1급 관찬 사료인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왕대별 제주 관련 기사를 추출하여 역주 자료집 발간

일정 1월~12월

사업명 제주 입도조(入島祖) 현황 실태 조사

내용 제주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입도조와 성씨 문화에 대한 전수 및 실태조사를 수행해 성씨별 입도조 묘역 등 기초 자료 제공

일정 1월~12월

사업명	고문서 조사 연구 사업
내용	제주도내 고문서 가운데 역사성과 문중 고문서로서 가치 있는 고문서를 발간하여 탈초, 해제 자료집 발간
일정	1월~12월

사업명	제주고전 강독회
내용	제주도내 일반인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탐라의 역사 문화와 관련 깊은 원전 강독 해설
일정	1월~12월

제주학 교류 · 정책 · 교육 사업

사업명	제7회 제주학대회
내용	제주학 학술대회, 제주 역사 탐방, 전시회
일정	9월 4일 ~ 8일

사업명	제주학 교류 및 정책 사업
내용	제주학 네트워크 구축, 협력 사업, 정책 세미나
일정	1월~12월

사업명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 『제주바투리』 발간 사업
내용	기관지 발간 및 배포
일정	5월, 11월 발간(2회, 반년간)

사업명	찾아가는 제주학 이야기
내용	제주학 교육 프로그램 수행
일정	1월~12월

제주학 동향(2022년 하반기)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문화유산의 기록과 보관〉 학술회의 개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원장 전영준)은 7월 4일 인문대학 2호관 현석재에서 전북대학교 무형유산정보연구소, (사)무형문화연구원과 함께 '문화유산의 기록과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제1세션은 기록과 아카이브, 제2세션은 문화유산 유형에 따른 기록, 제3세션은 현장과 문화유산 기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주 호적중초 문화재적 가치 재조명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11월 25일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제주 호적중초 문화재적 가치 재조명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 호적중초가 조선시대 호적중초의 대부분을 차지해 보고로 불리지만, 보관 실태가 취약해 소실·멸실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임승희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은 "제주 호적중초는 조선후기 사회변동 가운데 신분 구조와 가족 구조, 인구 변동을 밝히는 데 가장 기초적 자료"라며 "제주도가 제주연구원에 발주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마을 소장 호적중초 등 호적 자료를 조사한 결과 16개 마을에서 1308책 내외의 자료가 조사됐다. 호적중초 590책, 통적 191책, 민적부류 76책, 기타류 451건이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식민잔재 전수 조사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4월 도내 공공기관 일제강점기 식민잔재에 대한 조사와 실태를 파악하고, 청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역사문화진흥원에 이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진은 도내 잔존하거나 멸실한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실태를 파악한 뒤 청산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일제 식민잔재 청산활동위원회 운영 방향과 기능을 연구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전시실·주제관 등 새롭게 단장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노후된 상설전시실 일부를 새로운 콘텐츠로 전면 개편해 관람객에게 공개하고 있다. 개편한 공간은 2민속전시실(320㎡)과 자연사전시실 골격코너(66㎡)로, '제주의 사계(四季)'와 '야생동물과 함께'라는 주제관으로 재탄생했다.

제주교육박물관, 향토 교육 자료집 『국역 영헌유고』 발간

제주교육박물관은 향토 교육 자료집 『국역 영헌유고』를 발간했다. 『영헌유고』는 영헌 김대홍(1887-1963)이 쓴 산문을 모아 엮은 책이다. 김대홍 선생은 1927년에 봉개초등학교의 전신인 동보서숙을 개설하여 후진양성에 힘썼으며, 광복 후에는 4·3사건으로 봉개국민학교가 불에 타자 재건에 앞장 선 인물이다.

제주4·3평화재단, 미국에서 〈제주4·3 인권 심포지엄〉 심포지엄 개최

제주4·3평화재단은 12월 8일 미국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제주4·3과 인권, 그리고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 〈제주4·3 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 월든 코리아가 공동주관했다. 세계적 석학들의 발표를 통해 과거 미군정 시기 시작돼 미 군사고문단의 담당하에 벌어졌던 제주4·3에 대한 오늘날 미국의 입장을 듣고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국립제주박물관·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제주돌문화공원, 〈'제주 돌문화 연구 성과와 과제' 학술 심포지엄〉 개최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돌문화공원과 함께 12월 15일 국립제주박물관 강당에서 '제주 돌문화 연구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제주의 돌문화 연구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 돌문화'는 국제기념물유산협의회 한국위원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추천한 바 있고, 이번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제주 돌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활발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질 수 계기가 되었다.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2022년 곶자왈 심포지엄 '평화의 섬, 곶자왈 그리고 사람'〉 개최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11월 30일 김만덕기념관에서 〈2022년 곶자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곶자왈 공유화와 제주 환경의 평화'를 주제로 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2007년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으로 시작하여 15년간 운영되어온 곶자왈 공유화 운동을 되돌아보고, 도민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제주학회, 〈제55차 전국학술대회 '제주의 미래사회를 논하다'〉 개최

제주학회는 12월 9일 제주대학교에서 '제주의 미래사회를 논하다'를 주제로 〈제55차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인문학, 교육학, 환경학, 해양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제주의 미래사회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2 들엄시민 제주어 애니메이션』 개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해 제주신화와 역사를 제주어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2022 들엄시민 제주어 애니메이션』을 6편을 개발했다. 제주 사람과 돌 이야기, 우리 누나 시집가는 날, 그때 그 시절, 추억의 밥상, 저승차사가 된 강림, 농업의 여신 자청비, 옛 그림으로 떠나본 300년 전 제주 등 제주 신화와 자연 환경, 역사, 생활 문화와 관련된 소재를 다루었다.

허계생말·이혜영 글, 『제주사람 허계생』 발간

'마을출판사 먼물깍'을 운영하는 이혜영 씨가 『제주사람 허계생』을 발간했다. 이 책은 구좌읍 송당리 출신 1953년생 허계생 씨가 살아온 이야기를 기록한 책으로, 입말을 그대로 살려 제주어로 풀어냈다. 삼춘의 이야기 뒤에는 궁금증을 풀어주는 해설을 달고, 제주의 독특한 풍습 등이 함께 소개되었다. 책의 마지막에는 '제주어작은사전'도 실려 있다.

삼성여고, 지역 교과서 『함께 제주 노닥이기 Ⅰ, Ⅱ』 발간

삼성여자고등학교는 지역 교과서 『함께 제주 노닥이기 Ⅰ, Ⅱ』를 제작·발간했다. 유네스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교과서 제작 과정에는 1, 2학년 학생 8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 책은 '촘말로 귀한 제주어 ᄀᆞ찌 배워보카, 제주 바다와 해녀의 삶, 제주의 역사, 제주 곶자왈 생태 탐구, 제주의 건축물 초가와 울담, 제주 지형에 따른 생성 탐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어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어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지난 11월 공모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박물관 건립 타당성을 분석하고 입지와 건축, 시설, 관리 등 박물관 운영 전반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국내외 선진 사례를 조사하고, 제주어 전시·보존 등을 위한 운영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제주문학관, 〈'제주어 문학 숲이 되다' 특별전〉 개최

제주문학관은 '제주어 문학 숲이 되다'는 주제로 10월 13일부터 2023년 2월까지 제주어로 쓰인 문학을 중심으로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10월 22일, 23일에는 〈2022 제주문학난장-제주어 문학의 숲을 거닐다〉를 열고 제주문학 포럼, 작가와의 대화, 제주어문학 기획 전시 등 다양한 문학 행사를 열었다.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22 해설사 제주어 교육〉 운영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은 10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22 해설사 제주어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로 네 번째 진행된 이 교육은 제주의 문화와 역사, 방언에 대한 총 15회의 강의와 2회의 현장 답사로 진행되었다.

(사)제주어보전회, 〈제주어 심화 교육 과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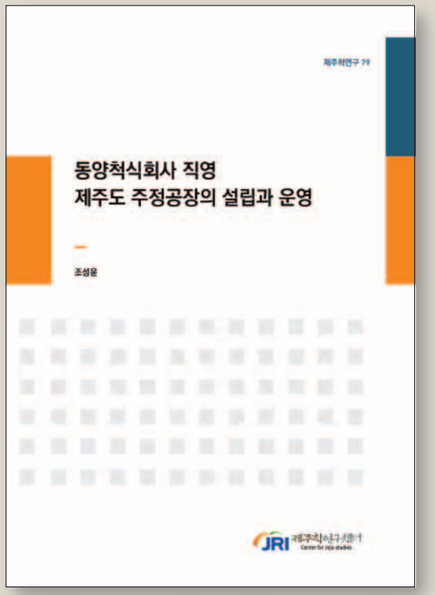
(사)제주어보전회는 10월 4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8기 제주어 심화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제주어 심화 교육 과정은 (사)제주어보전회에서 실시한 제주어 기본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제주어 어휘 및 문법, 제주어 문학, 제주어 보전을 위한 정책 등 다양한 주제로 총 8회의 강좌가 진행되었다.

제주대학교 박물관, 국립제주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제33회 특별전 〈형형색색 백년지계〉 개최

제주대학교 박물관은 9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33회 특별전 〈형형색색 백년지계〉를 개최했다. 제주대학교 개교 70주년을 기념한 이번 특별전은 전국 10개 국립대학교 박물관의 대표 유물 40점을 한 곳에 모아 선보였다.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형형색색의 유물들과 함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려는 제주대학교의 의지를 담아냈다.

제주학 연구비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연구 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학 연구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공모합니다. 관심 있는 연구자 및 단체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모 자격 제주학 관련 연구 기관/학술단체 및 소속 연구자

공모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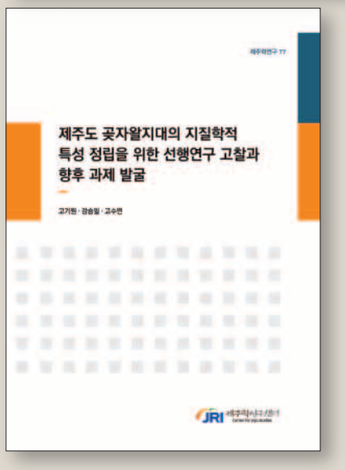
기획주제/자유주제 중 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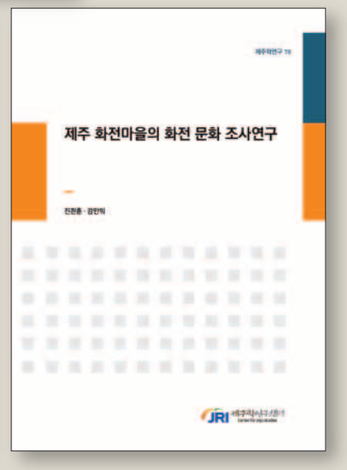
-기획주제: 추후 센터 내부 협의를 거쳐 세 가지 주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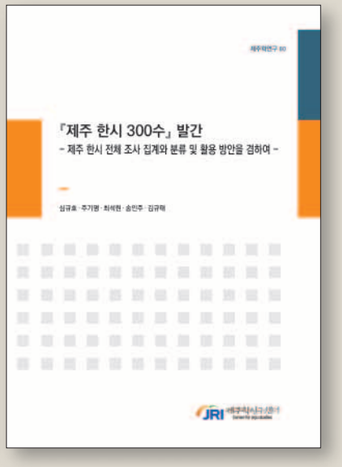
-자유주제: 제주학 관련 인문 • 사회 • 자연과학 분야

공모 기간 2022년 2월 중

수행 기간 선정 및 협약 체결 후 8개월 간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제주학 총서
출판비 지원 사업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연구 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학 총서 출판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공모합니다.
관심 있는 연구자 및
단체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모 자격 제주학 관련 전문가(학자, 교수, 연구자 등)
공모 과제
제주학 관련 인문 • 사회 • 자연과학 분야의 단행본 발간
제주학 관련 중문, 일문, 영문 등 외국어 서적의 국문 번역서 발간
제주학 관련 국문 서적의 중문, 일문, 영문 등 외국어 번역서 발간
공모 기간 2023년 2월 중
수행 기간 2023년 10월 말까지 발간 완료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